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낙낙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1월29일 (토) 제 1859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아프간, 북한 제치고 기독교 박해/차별국 1위!

## CT, 오픈도어 연간보고서 '2022 와치리스트 50개국 소개/설명 보도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천명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천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구금됐다. 600개 이상의 교회가 공격당하거나 폐쇄됐다”.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의 최근 연간 보고서 '2022 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WWL))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상위 50개국 중 아프가니스탄이 새롭게 1위에 올랐다. 미국 오픈도어선교회 대표 데이비드 커리는 “올해 보고서를 통해 박해 발생 지역에 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1992년 오픈도어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줄곧 북한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장악한 후 아프간 신자들은 자국을 떠나거나 국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고 가정교회들은 그 여파로 폐쇄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아프간 피난민 한 명은 “탈레반 시대 이전이 최고는 아니었지만

만 지금보다 좋았었다”며 그는 언젠가 아프간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익명을 요구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두려움 속에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북한이 2위로 밀려난 것이 북한의 종교적 자유가 향상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오히려 북한 내 새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시행되면서 기독교인 체포와 가정교회 폐쇄가 증가했다

크리스처니티 투데이(CT)는 동 선교회 올해 보고서를 용이하게 설명해준다. 전체적으로 기독교인 3억 6000만 명이 박해나 차별이 심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신자 5명 중 1명, 아시아 5명 중 2명, 라틴아메리카 15명 중 1명 등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박해 또는 차별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의미다(The 50 Countries Where It's Hardest to Follow Jesus in 2022: Latest report on Christian persecution finds Nigeria has 4 out of 5 martyrs worldwide, China has 3 out of 5 church attacks, and Afghanistan is now worse than North Korea).



# 용기 있는 리더가 다음세대 이끌어간다!

## 리더십저널 앤디 스탠리 목사의 필수적 용기의 3가지 표현 소개

미래 사회는 누가 만들어갈 것인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와 정보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포함해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다. 불확실성이 미래의 특징이라면 그것을 헤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은 다음 세대 리더들의 몫이다.

앤디 스탠리(Andy Stanley) 목사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세대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관련해 저자 자신이 과거에 알고 싶어 했고, 지금 알고 있으며, 내일의 리더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원리들을 능력·용기·명확성·훈련·인격의 다섯 가지 핵심 자질로 말해준다. 곧 다음 세대의 리더들은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개발하고 신중한 용기를 가지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분명한 지시를 내리며 리더십 코치를 두어 꾸준히 훈련해야 하며 성숙한 인격을 갖춰야 한다.

리더십은 미래에 가능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도전하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단지 현재 상황에서 도전하는 것이 상을 의미한다. 따를만한 리더가 되길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용기의 3가지 표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자 한다. 용기의 이 3가지 표현은 종종 리더들이 회피하는 부분이다(The Next Generation Leader).

1.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마이크 나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회는 의무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리더로서 기회가 찾아오면 누구든 당연히 문을 열고 어떤 일이든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3면으로 계속)

지난해 추적조사 29년 만에 처음으로 50개국 모두 오픈도어의 84개 기준 문항을 통해 '매우 심한' 박해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50개국 모두가 이 기준치를 넘어섰으며 기준치에 매우 근접한 5개국도 더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가 계속해서 가장 심한 박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픈도어는 중국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이 “종교적 소수자와 예배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쉬운 방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또한 박해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으며 특히 미얀마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는 북한의 상황을 연대순으로 기록했던 연간 WWL 순위의 목적은 지금도 박해 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도움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보고서의 내용은 60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오픈도어 직원들이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20일까지의 기간을 추적하며 작성한 보고서에 의해 수집됐다.

올해의 순위에서 아프가니스탄만이 유일하게 실질적인 변화

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 폭력 증가와 의료분야의 차별 때문에 18위에서 12위로 올랐다. 카타르는 이전에 허용되었던 가정교회들이 코로나 폐쇄 이후 이슬람 사원과 공식적으로 등록된 소수의 교회들이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29위에서 18위로 올라섰다. 인

도네시아는 정부의 테러 진압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두 차례의 치명적인 이슬람 공격으로 인해 47위에서 28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쿠바는 공산주의 원칙에 반대하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운동가들에 대한 강화된 조치 때문에 51위에서 37위로 올랐다.

상위 10개국은 작년의 순위에서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다. 3위 소말리아, 4위 리비아, 6위 에리트레아, 10위 인도는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예멘은 3계단 떨어진 파키스탄을 제치고 5위로 2계단 상승했다. 이란이 1계단 하락해 9위, 나이지리아가 2계단 상승하여 7위를 기록하며 안타까운 기록을 남겼다.

나이지리아는 2020년 이후 지난 11월 놀랍게도 미 국무부의 연례 '종교자유특별우려국가'에서 제외됐지만, 오픈도어 보고서에서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3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323-737-7699, 800-669-0451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Joa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100만불 그랜트 수상**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릴리 재단으로부터 백만불 그랜트 수상

**향후 5년 중점 프로젝트 Culturally Competent Pastoral Leader Project**

- 한어권 사역자와 영어권 사역자의 목회 파트너십과 리더십 함양 교육
-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 다문화 현정이 요구하는 실제적 이중언어 교육
- 문화적 소통 능력이 탁월한 차세대 목회 리더 양성 교육
- 선교적 리더십으로 문화 장벽을 극복하게 하는 신학 교육

**2022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개강일** 1월 24일

**수업 방식**

- 온캠퍼스 수업(On-campus learning)
- CANVAS 기반 온라인수업(CANVAS based online learning)
- 실시간 화상수업(Synchronous online learning)
- 온, 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수업(Blended learning)

**자격 및 인증**

BPPE, ABHE, ATS, 유학생 1-20 발행

**학위 과정**

**학부(B.A.) 과정**

- 신학(Theology)
- 사회복지학(Social Work)
- 국제경영학(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 가정상담학(Family Counseling)

**석사(M.A.) 과정**

- 목회학(Divinity)
- 목회학 원목 집중 과정(Divinity in Professional Chaplaincy)
- 상담심리학(Counseling Psychology)
- 선교학(Intercultural Studies)

**박사(Doctorate) 과정**

- 선교학박사(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 선교학철학박사(Ph.D. in Contextual Studies)

**장학 및 학자금 지원**

- 20여 종류의 장학금
- 주정부 학비지원(Cal Grant)
- 연방정부 학비지원(Pell Grant)
- 현역 및 퇴역군인 학비지원

**입학 상담** Tel. 562.926.1023

- 학부 과정 이명철 학장 (ext. 308 | mclcee@pts.edu)
- 목회학 석사 과정 김루빈 처장 (ext. 303 | rbkim@pts.edu)
- 상담학 석사 과정 김경준 디렉터 (ext. 310 | wisp3457@pts.edu)
- 선교학 석/박사 과정 신준식 디렉터 (ext. 309 | doctor@pts.edu)

**입학 지원 방법**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office@pts.edu로 연락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562-926-1023 | Fax 562-926-1025 | www.pts.edu

발행인 칼럼

내일이면 늦으리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내일은 공짜" 얼마나 놀라운 이발소 앞의 안내 간판인가. 그 간판을 보고 그 다음날 "탈라루라"하며 이발소를 찾은 사람이 이발을 다하고 황당한 경우를 맞게 되었다. 이발 비용으로 10불을 내라는 것이다. 그 손님은 어제 분명히 밖에 있는 안내 간판을 보고 왔노라고 화를 내었다. 이발소 주인이 다시 밖에 나가 보라고 했다. 여전히 그 간판이 서 있었다. "내일은 공짜" 그리고 보니 그 옆에 보일 듯 안보일 듯 써있는 가격표도 있었다. "오늘은 10불" 실제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내일을 헛되이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자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4:4).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 무엇인지 짐작하실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황금 소금 지금이다. 그중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었는가. "뉘니뉘니해도 머니가 최고지" 하면서 황금이 최고라고 꼽을 사람이 적지는 않겠지만 곰곰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가치 있다. 지금(present)은 최상의 선물(present)이다. 성경의 선언이 그것을 분명하게 해준다.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b).

여리고성에 가장 비참한 자가 있었다. 눈이 안 보이는 자였었다. 그의 이름은 바디매오이다. 그는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 날 그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나고 물었다. 그는 들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방해가 있었다. 어떤 장애물도 오늘이라는 기회를 붙잡으려는 바디매오를 막을 수 없었다. 그는 개의치 않고 더 크게 소리쳤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시고 고쳐주셨다. 삶의 버려진 자리에 있었던 바디매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가 붙잡은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눅1:43).

후회가 습관이고, 후회가 삶인 사람도 있다. 다 똑같이 24시간이라는 놀라운 기회를 담은 오늘을 사는데 그것을 매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내일해도 되잖아?" 오늘을 막는 장애물 앞에 바디매오처럼 더욱 전투력을 가지자. 후회하지 말자. 약간 패러디 한 것인데 약간 괜찮지 않은가. "좋은 울려야 좋고, 노래는 불러야 노래다. 오늘은 사용해야 오늘이다." 그렇다. 오늘이다. 내일이면 늦으리.

장기부족 해결 기대하나 윤리문제 여전

BBC, 최근 유전자조작 돼지 심장이식 둘러싼 3가지 논란 소개

미국 메릴랜드대 연구진이 사상 처음으로 유전자조작 돼지의 심장을 말기부정맥 환자에게 이식, 세계의 이목이 쏠리면서 동물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 11일, 동물 장기이식이 장기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지만 일부에서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며 환자 안전과 동물의 권리, 종교적 우려 등 3가지 논란을 예로 들었다 (Three ethical issues around pig heart transplants).

의학적 의미

동물의 장기를 이용한 이식 수술은 실험적인 수술이며 환자에게 큰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 심지어 기증자-수혜자간 적합한 인체 장기로 이식하더라도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동물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의사들은 수십 년 동안 동물의 장기를 이용해 이종이식을 시도해왔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984년 미국 캘리포니아 의사들은 개코원숭이의 심장을 한 소녀에게 이식해 생명을 구하려고 했지만 소녀는 21일 만에 사망했다.

사블레스쿠 교수는 인공심장이나 인체 장기이식을 포함해 선택 가능한 모든 치료방법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데이비드 베넷의 돼지 심장 이식수술 사례를 연구한 의사들은 그가 다른 선택 가능

을 대중 준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영장류를 대상으로 실험하면서 이것을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할 때도 안전하지 여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동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한다. 데이비드 베넷의 심장이식에 사용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돼지의 10가지 유전자를 변형시켜 그의 몸에서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수술 당일 아침에 돼지 심장을 적출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동물권익단체인 Animal Aid의 대변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물의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동물을 이용한 이종이식술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물은 유전적 변형이 수반하는 모든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의학적 의미 "선택가능한 모든 치료방법 제공이 중요"  
동물의 권리 유전자변형이 동물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종교적 의미 동물 장기이식 거부로 대기자 순위 하락

이종이식(Xenotransplantation)을 통한 치료방법은 매우 위험하지만 일부 의료윤리학자들은 만약 환자가 위험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종이식을 통한 치료를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말한다.

옥스포드대학의 실용윤리학 학장인 줄리언 사블레스쿠(Julian Savulescu) 교수는 "치료 후 환자가 치명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는 결코 알 수 없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이종이식을 통한 치료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이해하는 한 사람들은 이러한 급진적인 실험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치료방법이 없었고, 돼지 심장으로 이식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사망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식수술은 정당했다고 말했다.

사블레스쿠 교수는 수술 전 이 수술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매우 정밀한 조직(tissue)과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데이비드 베넷의 이식수술은 보통의 실험적인 치료에서 필요한 임상시험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다. 또 그가 복용하는 약물은 영장류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비드 베넷의 이식수술을 계획한 메릴랜드의 과대학의 크리스틴 라우(Christine Lau) 박사는 수술

말했다.

동물의 권리

데이비드 베넷의 사례는 또한 많은 동물권익단체가 반대하는 '인간의 장기이식을 위해 돼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동물권익단체 중 하나인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는 데이비드 베넷의 돼지 심장 이식사례를 "비윤리적이고 위험하며 엄청난 자원낭비"라고 비난했다. PETA는 "동물은 이식에 쓰이는 도구가 아니라 복잡하고 지능이 있는 존재"라고 말했다.

동물권익단체 운동가들은

말했다. 일부 운동가들은 유전자 변형이 돼지의 건강에 미치는 알려지지 않은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옥스포드대학의 카트리엔 데볼더(Katrien Devolder) 박사는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변형 돼지를 장기이식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고기를 얻기 위해 돼지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돼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동물복지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4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 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일,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시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9, and Nov 28. \$1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 2022 학년도 봄학기 학생모집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목사 회원과 30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2 학년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 신학사 과정(B.B.S.): 고졸자
- 기독교교육학석사 과정(M.C.E.): 대졸자
- 목회학석사 과정(M.Div): 대졸자
- 편입생 과정: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편입하는 목회후보자
- 편목 과정: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원하는 목회자

**특 전**

- 본교의 M.Div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안수받을 자격이 주어짐.
- 각종 장학금(성적, 근로, 총회 및 이사 장학금)

**2022학년도 봄학기**

기간: 2022년 1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1) 개강 예배

- 일시: 2022년 1월 31일 (월) 오후 7시
- 장소: Zoom

(2) 개설 과목

Date (7-9:30pm)	Course Name 과목명	Prof 담당교수
Monday (월)	Pastoral Theology (목회신학)	김선중교수 Th.D
Tuesday (화)	Prophetic Books (선지서)	김동진교수 Th.D
Wednesday (수)	Biblical Greek II (헬라어 II)	정인채교수 Ph.D

\*문의처: 김동진 학감 (626-675-8010)

**박사 과정 안내**

California BPPE 의 인가 (# 30693)와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tion 94874(e)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목회학박사 과정 (Doctor of Ministr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학위를 소지한 목회자 및 선교사
  - 졸업 학점: 36 학점 (논문 12 학점 포함)
- 신학박사 과정 (Doctor of Theolog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혹은 신학석사 (Th. M) 학위 소지자
  - 전공 분야: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중에서 택일(입학시)
  - 졸업 학점: 48학점 (논문 12 학점 포함)
  - 학비: 학점당 150 불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0577, 626-675-8010

아프간, 북한 제치고...

(1면에서 계속)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이 나라는 기독교인에 대한 살인, 납치, 성희롱,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가 가해지고, 가정과 회사에서 신앙을 이유로 공격받는 것으로 드러나 WWL 보고서에서 가장 심하게 폭력이 가해지는 국가 1위를 차지했다. 교회와 가장 심하게 공격받거나 폐쇄된 국가순위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기독교인들과 소수집단들이 안보기구에 의해 보호받거나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 더 극명해졌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의 종교적 자유 침해는 아프리카 사헬에서 이슬람교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말리는 28위에서 24위로 올라섰고, 오피다어는 내년에는 이 순위가 더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우려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가 꾸준히 32위를 유지했고, 니제르가 54위에서 33위로 뛰어올랐다. 인근에서는 중앙 아프리카공화국이 35위에서 31위로 올라섰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오피다어의 직원 알리아 자디는 "국제지 하드(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해 이슬람교도에게 부과된 종교적 의무)의 진원지는 이제 사헬 지역에 있다"고 말했다. "이 테러는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베냉, 토고, 가나, 코트디부아르공화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들이 현재 영향을 받고 있다"(외치

리스트 순위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기독교인 인구가 다수인 국가는 상위 50위권에 비교적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여기에는 콜롬비아(30위), 쿠바(37위), 에티오피아(38위), 콩고민주공화국(DRC)(40위), 모잠비크(41위), 멕시코(43위), 카메룬(44위) 등이 있다. 다른 주목할 만한 기록에는 14위에서 11위로 올라간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이는 이민자 개종자 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걸프 국가인 오만은 출국을 강요당하는 등 기독교인들, 특히 개종자들에게 대한 감시가 증가함에 따라 44위에서 36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인 비폭력 불교국가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면서 부탄이 43위에서 34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모두 부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라크와 시리아는 공격을 받은 교회 수와 기독교 사망자의 수가 줄어 3계단씩 떨어져 각각 14위와 15위를 기록했다. 튀니지는 구급된 기독교인이 줄어 25위에서 35위로 떨어졌고,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줄면서 타지키스탄은 43위에서 45위로 떨어졌다. 히말라야 국가인 네팔에서는 급진적인 힌두집단의 공격이 줄어들면서 순위가 34위에서 48위로 내려갔다. 그러나 오피다어는 코로나 19로 인한 기독교 활동감소로 인해 일부 표면적인 감소를 보인 것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집트는 16위에서 20

위로 떨어졌고, 터키는 교회에 대한 공격이 줄어들면서 35위에서 42위로 떨어졌다. 다만 이집트에서는 신도 8명이 사망하는 등 기독교인 개인에 대한 폭력이 여전히 있었고, 터키에서는 사회적 불신으로 고통 받는 기독교인에 대한 정부의 공격적인 발언이 점점 더 많이 발생했다. 몇몇 국가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상황이 공존했다. 수단인 국가 차원의 종교자유개혁이 아직 현지 차원에서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13위에 머물렀다. 콜롬비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감소해 30위를 유지했지만, 범죄활동과 사회적 적대감은 특히 원주민 사이에서 높아졌다. 그리고 38위로 2계단 떨어진 에티오피아는 종교와 민족적 박해를 구분하기 어려운 내전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의 감소가 지역사회의 압력에 의해 상쇄되었다. 오피다어는 기독교 박해의 주요 원인을 8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슬람 억압(33개국): 이는 전체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인 아프가니스탄(1위), 소말리아(3위), 리비아(4위), 예멘(5위), 나이지리아(7위), 파키스탄(8위), 이란(9위) 등 감시대상 국가의 절반이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박해의 주요 원인이다. 33개국 중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이슬람국가이거나 이슬람이 다수다. 그러나 6개국은 실제로 다수가 기독교다.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31위), 에

티오피아(38위), 콩고공화국(40위), 모잠비크(41위), 카메룬(44위). -독재적 편입증(5개국): 이는 기독교인들이 5개국에서 직면한 주요 박해의 원인이며, 대부분 다수의 무슬림이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다. 우즈베키스탄(21위), 투르크메니스탄(25위), 방글라데시(29위), 타지키스탄(45위), 카흐스탄(47위). -공산주의·포스트공산주의 탄압(5개국): 이는 주로 아시아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주요 박해 원인이다. 북한(2위), 중국(17위), 베트남(19위), 라오스(26위), 쿠바(37위)이다. -종교적 민족주의(4개국): 이는 기독교인들이 아시아 4개국에서 직면한 박해의 주요 원인이다. 기독교인은 주로 인도(10위)와 네팔(48위)의 힌두 민족주의자나, 미얀마(12위)와 부탄(34위)의 불교민족주의자의 표적이 된다. -조직범죄와 부패(2개국): 이는 콜롬비아(30위)와 멕시코(43위)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박해의 주요 원인이다. -기독교 교단 보호주의(1개국): 기독교인들이 에리트레아(6위)에서 직면한 박해의 주요 원인이다. -세속적 편협(0개국)과 종교 억압(0개국): 오피다어는 이러한 박해의 근원을 추적하지만 2022년 목록에 오른 50개국 중 어느 것도 주요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라오스, 카타르, 네팔, 오만에서 종교 억압이 주요 원인이었다.



시론

간절함



류응열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중국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한나라 장군 이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활을 쏘면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신궁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물이라도 정확하게 조준해서 명중시킬 확신이 있을 때 활시위를 당긴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사냥 중에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를 마주했습니다. 이광은 절박한 상황 앞에 죽을 힘을 다한 간절함으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호랑이에 명중했지만 호랑이는 쓰러지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호랑이가 아니라 거대한 바위였습니다. 바위 깊이 박힌 화살을 보면서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바위를 향해 화살을 쏘았지만 이번엔 빙겨져 나갈 뿐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석위호(射石爲虎), 호랑이로 알고 돌을 쏜다'는 사자성어가 탄생하였습니다. 간절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바로 간절함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목표를 향해 일관된 마음을 품고 하고 열정을 창출시키고 헌신을 즐겁게 만듭니다. 애플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명연설은 아직도 읽을 때마다 감동을 줍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쉽게 만족하지 말고 목마른 심정으로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라! 꿈꾸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꿈을 이루는 데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간절함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에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붙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요한 칼빈은 생명을 걸고 진리를 외쳤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없었다면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 위에 세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땅 조건에 생명의 빛을 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벽안의 젊은이들은 이들도 생소한 조선을 향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간절함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함을 상실하는 것은 인생의 심장이 멎는 일입니다.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사람들은 속히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지나고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꿈꾸어야 할 현실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이토록 길었던 역사의 어둠을 뚫고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에 더 나은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한 시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고난의 풍랑을 헤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소망의 항구까지 항해의 행진을 지속해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꿈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자신을 던지는 헌신이 가능합니다. 복음이 살아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에 대한 간절함으로 죽을 각오로 화살을 쏘듯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 생애 간절함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아무리 어둠이 길어도 동굴이 아니라 마침내 빛을 보는 터널을 경험할 것입니다. "연금술사"에서 파울로 코엘료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기록하신 주님, 부디 한번 살아가는 땅 위의 삶에 한순간도 적당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위해 불태우게 하소서. 순간마다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 마침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간절함은 비로소 씬을 얻을 것입니다. preachchrist@kcpc.org

용기 있는 리더가...

(1면에서 계속) 필요한 몇 가지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거기에만 집중

면 결국 비전을 잃게 된다. 비전이 분명치 못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흔히 두려움 때문

택하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리더가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궁극적인 기회, 즉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기

부정'이라고 한다. '부정'은 조직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다. 현실을 부정하는 조직은 보통 현실을 보정하는 리더가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리더의 핵심 자질 5가지: 능력·용기·명확성·훈련·인격

①'아니오' 말할 때를 아는 것 ②현실과 대면 ③사고에 제한두지 않기

하는 능력이 바로 위대한 리더의 특징임을 기억해야 한다. 잠재력이 가장 높은 한 가지 기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많은 기회들에 주의를 분산시키지 말아야 한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

이다.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자기만 제외되는 것이 두려기 때문이다.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리더는 잡아야 할 기회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회를 신중하게 선

회를 놓치고 만다. 2. 현실과 대면하는 용기 '아니오'라고 말할 때를 아는 것에 더해 리더는 현실과 대면해야 한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현실

만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따를 만한 리더는 현실이 아무리 비판적이고 당혹스럽더라도 현실과 대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4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양의문교회 (The Sheep's Gate Presbyterian Church) recruitment. Title: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Includes details about the church, qualifications for candidates, application proces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cruitment committee.

Advertisement for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Title: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Details the study's focus on diet, environment, and disease, lists benefits for participants,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recruitment.

###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배이사이드장로교회)



### 매일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씩 해결하십시오

지난주에 누군가 이런 글을 쓴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480년에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Leonidas)의 300명의 군대는 좁은 산길을 통과해 오는 수십만 명의 페르시아군 크세르크세스(Xerxes) 군대를 한 번에 한 명씩 싸워 물리쳤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 스펀전(C. H. Spurge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레오

니다스와 그의 소수의 부하들이 광활한 평원으로 나가서 그들은 페르시아인과 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사자처럼 싸웠을지라도 즉시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스펀전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하기로 선택하면 반드시 패

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하나하나 감당하면 자기의 힘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글은 항상 어려운 일이 겹쳐 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사는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가 없는 날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등장하고 질병의 문제가 끝나는 것 같으면 인간관계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은 웃는 날보다는 슬퍼하고 걱정하며 사는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문제를 만나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지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삶이 헛된 것은 짧은 삶 동안 문제만 치다꺼리 하

다 인생을 끝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 참 인생이 그의 말과 같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느끼게 됩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언제나 문제 속에 격정하며 산 것이 다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애가서는 우리가 그런 문제 많은 삶을 살아도 소망 중에 보람되게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26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썩고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여호

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와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것을 알며 근심에 빠져 있을 때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는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소망을 잃고 있을 때 기도하므로 그 근심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

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 중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문제 많은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루를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기 위해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루를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주셔서 헛되게 지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 동안 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며 산다면 우리 삶 전체는 소망 가운데 보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아침마다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david2lord@hotmail.com

### 푸/른/초/장

김희복 목사

(뉴욕 주찬양교회)



인간의 생사화복과 한 가문의 승패와 나라의 흥망성쇠가 절대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2022년도와 앞으로의 우리 인생이 잘 될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살면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인생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높여주시고 절대적으로 책임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자 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겠습니까?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면을 아시는 분이십니까(1절)

첫째로 영적인 면을 아시는 분이십니까(1절)

조차도 다 아시므로 그분을 속일수도 없고 그분을 멀리하여도 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우주 천체와 지구촌과 인생의 앗고 일어섬의 역사와 이 땅의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의 의해 바뀌진다는 것입니다.

다(사44:28-45:13).

이제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그 누가 이 백성들을 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이며 선교인 것입니다. 누가 미국을 일으키겠습니까? 누가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키겠습니까? 이제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에 고레스왕과 같은 영적인 왕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하여 구원하였습니다. 고레스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택한 백성의 죄인을 살려내었듯이 오늘날의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했을 때 영적인 고레스는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고 확

신해합니다. 그 도구는 회개 기도라는 도구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 모두가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절대주권 가운데 달려 있는 것이므로 이제 성도는 영적으로 돌아서는 절실한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사 아름다운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육적인 면을 아시는 분이십니까(2-3절)

셋째로 주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적이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7-10절)

성도가 영적인 면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육적인 면인 행동으로 매달리며 기도할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죄 지은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피할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8절 땅과 하늘을 주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9-10절 우리 인간을 끝까지 실제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희망과 소망도 없으며 비전도 꿈도 없으며 성취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우리 주 하나님은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잔머리를 버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는 인생은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맡기시고 목회도 맡기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도 그 분에게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면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은 영리하게 하기 때문에 영적인 면으로 살아가자는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나의 지혜를 믿지 말고 그 분을 경외하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실제적으로 인도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한해가 되시고 인생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kimheebok7@gmail.com

## 절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

### 시편 139편 1-10절

첫째로 영적인 면을 아시는 분이십니까(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찰이란 말은 감독한다는 의미와 아주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대뇌와 소뇌의 생각과 내적인 사람의 속마음까지 영적으로 다 보시고 아신다는 의미로서 2절 말씀에 보니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통촉하신다는 말은 모든 형편을 헤아려 살펴보고 꿰뚫어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코람테오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속마음 깊은 생각

전체적인 윤각에서 볼 때 이 땅의 기준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이해되거나 알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이블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성경 말씀 가운데 나를 진단하여 보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역사서를 볼 때 모든 나라의 회복의 역사는 만사가 하나님의 때에 있습니다(전3:1-15).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을 때 가차 없이(삼상7:3) 앗수르 나라의 몽둥이로 치사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였으며(BC 722년)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이레를 정하셨고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그들의 사모함과 회개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인 70년이 찻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주기로 원하셨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메대바사 페르시아의 초대왕인 이방인 황제 고레스였습니다(BC 558-529년).

고레스왕은 메대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미리 고레스왕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3차로 본국으로 고토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였습니

다(사44:28-45:13).

이와 같이 개인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절대주권 가운데 달려 있는 것이므로 이제 성도는 영적으로 돌아서는 절실한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사 아름다운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육적인 면을 아시는 분이십니까(2-3절)

2절 주께서 나의 앗고 일어

### 장기부족 해결

(2면에서 계속)

종교적 우려

동물의 장기를 이식 받는 것에 까다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돼지의 장기는 인간의 것과 크기가 비슷하고 사육이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이슬람교 환자에게 돼지의 장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영국 보건부의 도덕 및 윤리 자문그룹(MEAG) 위원이자 런던 고위 랍비(rabbi)인 모세 프리드먼(Moshe Freedman) 박

사는 "비록 유대법(Jewish law)에서 유대인들이 돼지를 기르거나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돼지 심장을 이식 받는 것은 유대인 식사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대법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 장기이식을 통해 생존과 높은 삶의 질을 영유할 수 있다면 유대인 환자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슬람의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할 경우 그해 비록 동물일지라도 사용이 허용된다는 유사한 내용이 있다.

이집트 최고 종교기구인 다르 알-이프타(Dar al-Ifta)는 "환자의 생명에 대한 공포, 장기 중

하나의 상실, 질병의 지속, 건강의 급격한 악화가 있는 경우에 돼지의 심장판막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사블레스쿠 교수는 누군가가 종교적 또는 윤리적 이유로 동물 장기이식을 거부하더라도 인체 장기이식 대기자 명단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동물 장기를 통한 이식의 기회가 생기면 환자를 이식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도 이식을 기다릴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며 "그것은 우리가 합의해야 할 입장의 차이"라고 말했다.

### 용기 있는 리더가...

(3면에서 계속)

그러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실을 알기 위해 혹독할 정도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뿌리를 뽑고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관해 유익하고도 투명한 교회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채 조직을 이끌려고 노력하는 것은 선례를 치는 것과 같다. 그리 멀리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물속에 잠기고 말 것이다. 리더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현실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만약 그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꾸면 된다.

### 3. 꿈을 꾸는 용기

위대한 업적은 모두 꿈을 가지고 시작됐다. 어떤 저술가가 밝혔듯이, "모든 일은 두 번 창조된다. 처음에는 정신적으로,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창조된다." 리더로서 세 번째 용기의 표현방법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에 관해 꿈을 꾸는 것이다. 생각의 날개는 현실의 울타리를 벗어나 가능한 한 사역에 대한 그림을 마음껏 그리기 시작해야만 한다.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리더라고 항상 재능이 가장 뛰어나거나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은 아니다. 리더는 자신의 사고에 제한을 두지 않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미 성취했거나 실패한 일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꿈을 꾸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꿈을 붙들자마자 갑자기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할 많은 이유들로 우리의 머릿속은 짙어진다. 마침내 그 일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전진하고 꿈을 꾸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도와주는 일에 제동이 걸리거나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머릿속에서 아무렇게나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 가슴과 상상력을 사로잡는 꿈이 있을 것이다.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당신의 인생과 리더십을 위해 놀라운 비전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와 예배의 축복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모든 복이 있다. 주의 전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만나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 생활은 반드시 교회생활과 예배생활이 분명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 어디에서도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이 잘살아 보기 위해 자신들의 신을 세우고 노력하며 빌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러시아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던 나라였으며 다른 종교가 없었다. 그러나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화가 되었고, 교회와 예배가 폐하여지며 하나님을 떠나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어 주려 죽는 피폐한 땅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을 우상화하고 있는 북한을 보라.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얼마나 불쌍해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된다.

고, 삶에 복이 없다. 그러나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볼 수 있다.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 땅에서 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지혜도 얻게 된다. 유한한 이 땅의 생명,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땅의 시간을 아끼는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존을 누리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닫는 지혜가 예배 가운데 들어 있다.

예배의 실패, 모든 것의 실패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다. 구약의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보라. 오직 한가지뿐이다.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좃았을 때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가문 그가 섬기는 나라까지 망하는 것을 본다. 왜 그러한가? 예배에 실패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개치 못하는 그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이 그들을 마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은혜 안에 온전히 불들리지 않게 되자 결국 실패자의 인생길, 교만의 길로 달려가게 된 것이다.

그런 교만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증상을 찾았다면 무엇일까? 예배가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게 된다. 인생교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배의 실패이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함으로 예배가 실패하면 어떤 구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느냐?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져버리는 것이다. 심령이 완고해져서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를 못하게 된다.

사울의 교만이 예배를 통해 드러났다. 사울이 사무엘 오기를 기다린다.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늘 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겠다고 말했으니 기다려본다. 그런데 약속한 사무엘이 정작 제때 오지를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그냥 드러버렸다. 예배를 해치워버린 것이다. 교만은 예배 받으실 대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 예배도 하나의 수단처럼 도구처럼 치부하

이 잘린 채로 그 시체가 한참이나 떨어진 성벽까지 아마 질질 끌려서 갔을 것이다. 예배가 실패하고 회개에 인색함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버리실 때 너무 비참하게 버려지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버리시면 인간이 가지는 명예와 형색과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이 죽었을 때 냉동창고에 집어넣고 사람들이 발로 밟아 찢으면서 사진을 찍고 놀릿감을 주는 장면이 기억난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도 이 분이 왕이었으니까 곱게 모시고가서 거기다 툇 걸었을까? 아닐 것이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절절하게 표현을 한다.

길보아산에서 벤산 성벽을 가려면 개울도 지나가고 돌밭도 지나가야 하는데, 그곳까지 질질 끌려가서 그냥 벤산 성벽에 턱하니 걸린 게 사울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가 죽는 날 그 아들 셋도 한날 동시에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왜 일까? 예배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어느 교회에서 “다니엘의 21일기도”란 제목을 걸고 특별새벽기도를 하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21일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세리토스에서 정 권사

A: 다니엘은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조국 유대나라의 회복을 위해 수십 년간 기도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고레스왕이 유대인 귀환 영을 내릴 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싶었으나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85세의 고령이어서 오늘날처럼 차가 없는 그 당시 상황에서 몇 달이 걸리는 광야 여행길을 감당할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파사나라 왕 밑에서 맡은 중요한 직책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는 21일 간 특별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21기도는 단10:2-32절에 나옵니다.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

성전건축 중단, 이스라엘의 타락 소식에 간절히 기도

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85세가 된 나이에 금식하며 먹을 것을 입에 대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중동의 사막기후에는 목욕 후에 몸이 뜨지 않도록 보통 기름을 바르는데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는 동안에는 목욕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을까요? 2가지 이유로 봅니다.

첫째 성전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고국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약 2년 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5만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시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규모 방해공작을 퍼서 성전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현재 페르시아 전체를 관리하는 최고관리였기 때문에 이 모든 소식을 빨리 전해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위해 성전을 힘든 가운데서도 짓겠다고 하는데 원수들의 방해공작으로 상부의 지시가 내려와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 때문입니다. 당시 바벨론 지역의 페르시아에서 살던 많은 유대민족들은 자기의 고향 땅 유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고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민으로 오래 정착하다보니 이젠 이국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가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를 모으고 자신들도 모르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족들이 세속화 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의 마음은 슬픔과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 이레 즉 21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고 목욕도 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85세 된 노인이 금식하며 21일간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노인이어서 체력도 약한데 그렇게 오래 금식하는 것은 믿음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해외에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교회, 세상과 삶의 축복 (4)

- 나라와 민족, 가정과 개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없었음에도 굶주려 죽는지 모른다. 영국과 유럽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고 예배가 무너지자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보라. 영국에서 집회를 하고자하면 선불파리를 풀어놓고 시작해야 한다. 저들의 교회는 박물관소가 되었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예배하지 않음으로 돈에 굶주려가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 축복의 세팅

피조물인 인간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수립, 교제를 통하여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복은 한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함으로써, 그 교제의 풍성함과 권세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것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라고도 말씀하시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고만하여 하나님을 배격하고 스스로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세팅해 두신 모든 복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예배가 무너지면 창세로부터 정하신 교제와 소통이 단절되었기에 답답한 인생을 살게 되

침내 망하는 길로 내치게 된 것이다. 예배 중에 주시는 죄 사함의 은총, 회개를 통한 회복의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사울왕이다. 사울왕은 베냐민지파 출신이다. 베냐민지파는 아주 약하기 그 지없는 지파이다. 그런데 그 베냐민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가문 기스가문에서 왕이 됐던 것이다. 도저히 왕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가문인데 왕을 배출한 것이다.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될 때에 당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감사하며, 방언을 할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왕 노릇을 시작했다. 그러나 점차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보다 자신의 왕권의 권력에 더 눈과 마음이 가게 되었다. 그 결과 은혜는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망할 길을 찾아가게 된 것이다. 교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은혜를 놓치는 순간에 누구 예외 할 것 없이 찾아오는 것이 교만이다. 인생이 받은 은혜만큼 갈수록 좋아지는

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다.

예배의 실패, 회개가 없음

사무엘이 와서 사울왕을 책망한다. 사무엘이 책망하자 그가 대답한다. ‘부득이 해서 그렇게 했노라’ 그렇게 말한다. 부득이하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억지로 해치웠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기 싫는데 안할 수는 없고 억지로 했다는 것이다.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예배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해치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핑계와 원망만 있을 뿐 회개하는 심령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죄를 지었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사무엘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위해 제단을 쌓아달라고, 그렇게 했다’라면 그가 살아났을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했다’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회개는 하고 싶다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인생이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너무 비참해지는 것을 본다.

길보아산 위에서 죽은 후 목이 잘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 그 시체가 벤산 성벽에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목

죄많은 인생의 회복-예배

사울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인생의 죄악 된 교만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온전하였으면 그는 회개했을 것이고 회복이 되었을 텐데 그 죄가 예배와 관련되다보니 살 길이 없어진 것이다.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 회개될 틈이 없어진 것이다. 그렇게 끝까지 가다보니까 그의 인생은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한 종말로 끝나 버린 것이었다. 더불어 영적자랑의 믿음과 예배가 실패하니 자식들도 그 아비와 함께 철저히 패망하고 복을 놓쳐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사울왕에 비해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더 험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미투같은 죄악, 살인교사, 성추행 등의 죄를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주시고 다윗 때문에 그 자손의 왕위를 보전한다고 약속도 했다. 사울이 애매하게 사람을 죽였는가? 성적인 죄를 지었는가?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예배를 실패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못했을 따름이다.

이에 반해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달리 말하면 예배에 풍성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살 길을 열어놓고 계셨던 것이다. 이것이 다윗을 살리는 길이 되었다. 예배에 온전함이 있을 때 죄의 사유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 그러나 예배가 실패할 경우 회개의 영이 떠나고 마침내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신앙과 목회의 최우선

마지막 종말시대를 살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목회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 교통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능력이요 권세이다. 예배가운데 모두 들어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회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맡기시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예배를 통해 주신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개인,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선교뿐 아니라 당시의 영광을 위해 맡기신 일들,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종말시대를 지나가며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죽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다.

davidnjon@yahoo.com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민들레 흠씨

세상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 놀라운 생명력을 보이기도 한다. 민들레 흠씨도 그 중 하나다. 바람에 휘날리다 척박한 땅에 떨어져도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흠씨처럼 코로나 19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 갇혀 허우적대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무엇이 나타나 2022년이기를 소망해 본다.

소망은 하되 그 무엇이 바로 나 또는 우리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더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교훈한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쉬운 게 절대 아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의 희생이 아닌 누군가의 희생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이 달리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절대 조건은 죄가 없어야 했다. 죄인으로서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에덴동산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하나

도 없다. 따라서 사람으로서 결코 사람의 죄를 대속하지 못한다.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슴 아파 하셨다. 죄의 삯은 사망임을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람의 창조는 매우 특별했다. 모든 우주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되었다. 있으나 하시니 있고 나뉘라 하시니 나뉘었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증언이다. 그렇지만 사람은 달랐다. 흠씨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것이 바로 사람이었다. 또 그렇게 만드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빼닮은 사람과 함께 에덴동산 거니시는 것을 즐기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도 애지중지하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배반하기에 이르렀다.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그

리고 그 삯은 죽음이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지켜만 보실 수가 없어서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외치셨다. 다 이루었다! 지금 이 시간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신 주님의 외침이 들리는 모든 자에게는 빛이 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에겐 사람을 살리고 죽일 권세가 없다. 그럴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이렇게 시작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 그 뒤에 빛진 자가 해야만 하는 일이 이어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이름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의 발이여.” 구원의 빛을 진 자들이 할 일 즉 사명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믿지도 부르지도 못하는 자들이’ ‘듣고 믿고 부르도록’ 전파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그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기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은 민들레 흠씨가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에 흩어지듯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빛진 자가 전하는 복음이 때로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져 결실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옥토에 떨어지면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옥토에 떨어진 씨가 많은 결실을 하는 것처럼 빛진 자가 외치는 그 복음에 의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 그 하나님을 되찾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선 잔치가 열릴 것이다. 새해가 시작된 이 첫 달에 나와 우리 즉 빛진 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하

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한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라 그의 조카 롯을 그 죽음의 성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씀이다. 나 또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무엇이 사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나와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신 것은 믿음이였다. 그렇다면 이 한 해 하나님이 보실 나와 우리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발은 곧 전파하는 발이었다. 나와 우리가 외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거룩한 구원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은, 민들레 흠씨가 척박한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며 실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죽을 자는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그 무엇이겠는가?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유튜브, '성경적 성' 강조 설교 삭제

유튜브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 유명 목회자의 설교를 삭제했다.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선벨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담임인 존 맥아더 목사는 15일 주일 설교에서 '성경적 성'에 대해 강조했다.

맥아더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트랜스젠더 같은 것은 없다”며 “여러분은 XX(여성체) 아니면 XY(남성체) 둘 중 하나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며, 그것이 생리적이고, 과학이며,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짓말과 기만의 현실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해롭고, 파괴적이고, 고립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맞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립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과장할 수는 없다. 관계에서 고립된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 설교는 8일 캐나다에서 동성애에서 이성애로의 '전환치료요법(Conversion therapy)' 시행을 금지하는 법안(Bill C-4)이 통과된 데 대한 항의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날 맥아더 목사를 비롯한 4000여 명의 목회자들은 주일 강단에서 일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에 대해 설교했다.

'코시국'에 가장 시급한 목회과제는

미국 교회 목회자들은 '교회 내 리더와 봉사자 발굴'을 코로나 시대 목회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라이프웨이)는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와 목회'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라이프웨이는 조사에 앞서 자체적으로 목회자 200명의 의견을 청취한 뒤 목회 현안을 44개 항목으로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에서 응답자 77%(중복 응답)는 사역 중 최우선 과제로 '교회 내 리더와 봉사자 발굴'을 꼽았다. 이어 '비기독교인들과의 관계 형성'(76%), '성도들의 무관심 또는 헌신 부족'(75%), '개인적 기도의 일관성'(72%), '주일 성수'(64%), '사죄와 회개'(61%), '시간 관리'(61%)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역의 비대면화, 성도 수 감소 등 목회 현안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스콧 매크넬 라이프웨이 총괄 디렉터는 “조사를 통해 목회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역 위기감이 얼마나 크고 다양한지 알 수 있었다”며 “동시에 목회자들이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지름길을 찾는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목회에 조언을 나누고 도움을 구할 대상에

대해서는 교회 밖 전문가보다는 교회를 잘 이해하는 대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4명 중 3명(75%)은 '비슷한 문제를 겪은 목회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밝혔고, '같은 위기를 헤쳐 나가고 있는 목회자'(70%)를 조언 대상으로 꼽은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듣고 싶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목회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목회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에 대한 시각도 차이를 보였다.

65세 미만 목회자들의 75%가 '비슷한 목회 현실을 경험한 목회자에게 조언을 받고 싶다'고 밝힌 반면, 65세 이상 목회자들은 같은 질문에 57%만 동의했다.

벤 맨드렐 라이프웨이 크리스천리소스 회장은 “코로나19로 기존의 목회가 커다란 도전을 만나게 됐다. 현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현장 목회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목회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혜로운 방법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4월 22일까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는 ±3.1%다. 라이프웨이는 44개 항목을 구체화하고 영역별 연구를 진행해 목회 현장의 필요와 해결 방안을 후속 발표할 계획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1주년... '종교자유' 현주소는?

1월 16일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의 첫 번째 자유를 수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했다.



이 글을 쓴 데이비드 크로스(David Closson)는 미국 기독교 보수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의 기독교 윤리 및 성경적 세계관 국장이다.

크로스는 종교 자유의 날에 대해 “1786년에 통과된, 미국 최초의 종교자유법령인 ‘버지니아 종교 자유법’을 기리는 날”이라며 “불행히도 바이든 행정부는 신자들의 권리를 의미 있게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먼저 그는 2021년 1월 20일 바이든이 취임 후 첫 번째 내린 행정명령인 ‘성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예로 들었다.

크로스는 “이로 인해 바이든은 논란이 된 ‘보스토크 대 클레어튼카운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보류를 고용차별의 범위를 훨씬 넘어 확대시켰다”고 했다. 2020년 당시 이 판결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근로자들이 연방 차별금지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명시했다.

또 “2021년 2월 4일 바이든은 전 세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중성인의 인권 신장’에 관한 각서를 발표했다”면서 “이 각서는 ‘미국의 외교 및 해외 지원’에 있는 모든 곳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재확인하고 보완한다”고 했다.

그는 “각서의 진정한 의미는, 극좌파의 ‘인간성’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서 ‘자연 발생적인 결혼과 인간의 성’을 지지하는 법을 가진 동맹국들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에서 종교의 자유 대신 급진적인 LGBT 정책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또 2021년 2월 11일에 발표된 주택도시개발부(HUD) 각서를 예로 들며 “이 조치로 인해 매 맞는 여성을 위한 HUD 자금지원보호소에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과 함께 수용되는 것이 의무화되고 침실·욕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2월 14일 바이든은 전 행정부의 ‘백악관신앙및기회구상(WHFOI)’을 해체하고 ‘백악관신앙및아웃 파터너십사무국(WHOFBNP)’으로 대체했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 보호에서 벗어나,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종교단체들이 LGBT 의제에 반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운영되지 않도록 방향을 바꾼 조치”라고 평가했다.

크로스는 2021년 3월 8일 ‘백악관 성 정책위원회’ 설립을 지시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 위원회의 설명란에 “LGBT 공동체를 포함한 특정 집단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성별이나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국내의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증진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라며 “과학적·생물학적 매개변수의 제거는 이 위원회가 생물학적 여성의 요구를 적절히 보호하고 해결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전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첫 번째 자유’가 우선되고 적극적으로 보호받았다. 예컨대, 법무부는 기도와 종교적 표현을 보호하는 법을 강력하게 시행했다. 미국보건복지부(HHS)는 양심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연방법을 시행하고자 민권청 내에 ‘양심 및 종교 자유 부서’를 신설했다. 미 국무부는 해외에서 종교의 자유 문제를 강조하는 연례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중시하고 신앙인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불행히도 바이든 행정부는 ‘차별반대’라는 말로 표현된 급진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뒷전에 내팽개쳐 뚝뚝 써, 많은 (종교자유) 정책을 취소하거나 약화시켰다”며 “친종교(pro-religious) 자유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권리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이전 행정부가 확보한 합법적 얻은 보호들 중 일부를 후퇴시키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간 탈레반, 첫 '서방외교'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이 지난해 8월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 처음으로 서방 국가를 공식 방문해 대화를 시작했다. 이번 방문에 따라 국제사회가 탈레반을 아프간 합법 정부로 인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 등 외신은 아미르 칸 무타키 외교부 장관이 이끄는 탈레반 대표단이 23일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호텔에서 아프간 여성 운동가, 언론인 등과 만나 인권과 인도주의적 지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탈레반은 이를 시작으로 24일 미국, 프랑스, 영국, 25일 노르웨이 등 서구권 국가와 릴레이

회담을 가진다. 탈레반은 국제사회에 미국 측에 동결된 자국 자산 100억 달러에 대한 동결 해제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서방 국가들은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최우선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또 탈레반이 아프간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권력을 분점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질 전망이다.

첫날 일정을 마친 탈레반은 곧바로 이번 방문을 통해 이뤄질 회담이 국제사회가 탈레반을 아프간 정부로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자평했다. 탈레반 대표단의 사피울라 아잠 외교부 경제협력담당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로서 공식 인정받는 절차”라며 “이런 초청, 소통 등을 통해 아프간 정부에 대한 유럽·미국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탈레반을 초청한 노르웨이 정부는 탈레반의 합법 인정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노르웨이 외무부 밖에서는 시위자 200여 명이 모여 외교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탈레반과의 공식 회담을 추진한 노르웨이 정부를 비판했다. 아프간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포함된 시위대는 탈레반을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다.

아프간은 탈레반 집권 후 물가 상승, 실업 폭증, 기근 등으로 인해 경제 질서 붕괴에 직면했다. 유엔은 100만명에 달하는 아프간 어린이들이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인구 90%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에서는 여성에 대해 여전히 교육, 외출, 취업 등에서 제약이 가해지고 있고 언론 탄압이 만연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보다 북한미사일이 더 걱정”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더 우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폭스뉴스는 “다음 항목 중 걱정하는 사항을 답해달라”는 질문에서 응답자 68%가 ‘미사일 발사시범을 하는 북한’ 항목을 답했다. 23일 보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 항목 응답은 62%였다.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방어망을 무력화하려는 극초음속미사일 형태인 데다,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유권자 우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의 최대 우려 항목은 인플레이션(85%)이었다. 40년 만의 최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기록되고,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공급망 문제가 다시 터지면서 물가상승 우려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높은 범죄율(81%), 정치적 분열(78%) 항목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남부 국경지대의 이민자(59%), 유권자 억압(58%), 유권자 사기(53%) 등 항목은 북한 미사일 도발 우려보다 낮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과 관련해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2%로 ‘지지한다’는 의견(47%)보다 소폭 높았다. 하지만 ‘오늘 2024년 대선에 치러지면 누구를 뽑겠느냐’는 문항에선 60%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6%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9일 비컨리서치 등 2곳의 여론조사기관이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언약(covenant)개념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였다.

청교도 신학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수단으로 신구약에 나타난 언약개념을 채택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인간의 죄의 빛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과 은혜언약을 세우셨다.

청교도 언약신학은 율법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청교도들은 언약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율법주의(legalism)를 비판하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율법폐기주의(Antinomian Controversy)를 비판하였다.

앤 허친슨은 영국에 있을 때 링컨셔(Lincolnshire)에서 존 코튼(John Cotton)의 설교를 들었는데, 코튼이 보스턴으로 오자 남편 윌리엄을 설득하여 코튼이 있는 보스턴까지 오게 된다.

당시의 보스턴 지도자들은 앤 허친슨의 이러한 주장은 보스턴 사회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하였고 사회적 안전에 큰 위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이 사건은 Edmund S. Morgan, The Puritan Dilemma, 1958, and Visible Saints: The History of a Puritan Idea, 1963) 책에 자세하게 나온다).

그리고 심문과정에서 앤 허친슨은 성령의 직접계시를 주장했다. 존 윈스롭을 비롯한 보스턴의 지도자들은 앤 허친슨을 율법폐기주의자(Antinomian)로 규정하여 보스턴 사회를

이 지남에 따라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칼빈주의 정통 개혁주의신학이 점점 희석되어져갔다.

보스턴의 사무엘 윌라드(Samuel Willard)의 책, "The Compleat Body of Divinity"은 그가 죽은 후 1726년 출판, 청교도의 조직신학 책으로서 언약신학을 근거로 한다.

그리고 또한 코튼 매더(Cotton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윌라드와 매더의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당시 뉴잉글랜드는 초기 칼빈주의 사상이 많이 쇠퇴해졌다. 당시 유럽에서 출현한 이신론(Deism)이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고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뉴잉글랜드 청교도 사회는 매우 불안해했다.

18세기 초의 뉴잉글랜드 청교도신

지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었다.

프렐링후이센 목사는 신앙의 공식적인 정통성(formal orthodoxy)보다 마음의 태도(attitudes of the heart)를 더 중요시했다.

그리고 장로교 길버트 테넌트(Gilbert Tennent, 1703-1764) 목사는 프렐링후이센의 이웃인 뉴저지 뉴브론즈윅(New Brunswick)에서 목회했는데, 매우 강한 언어로 교인들에게 회개를 외쳤다.

이 시기에 매사추세츠 노스 햄튼(Northampton)에서 회중교회에서 목회하던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 1703-1758)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매우 능력 있게 연속해서 설교하고 있었다.

사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드였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당시의 발달된 사상의 정교한 범주 속에서 기독교적 행동의 본질을 칼빈주의신학을 기초로 해서 연구하였다.

에드워드는 "사람 안에 의지와 같은 실체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Rather, people willed to do something in accordance with the strongest motive within themselves)에 따라 무엇을 하려고 한다(will to do)", 다시 말해서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하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내적 본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시지 않는 한, 죄로 부패한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는다(not will to do)는 것을 강조한다.

(10면으로 계속)



## 미국 개혁주의신학의 역사 (2)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 청교도 언약신학은 율법의 위치 유지하면서 하나님 은혜 강조 미국 대각성운동의 대표 조나단 에드워드는 '참된 덕' 주장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인물로 규정했다. 앤 허친슨에게 끝까지 동정적이던 존 코튼도 더 이상 앤 허친슨을 도울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존 코튼의 설교 중에는 성령의 직접 사역을 매우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앤 허친슨이 이것을 옹호했다. 존 코튼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말했지만 그러나 앤 허친슨은 율법폐기주의(antinomianism)적이며, 성령의 직접계시를 주장했고 그녀는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었다.

당시 Massachusetts Bay Colony의 General Court에서 앤 허친슨의 사상을 검증하는 기준은 칼빈주의 언약사상이었다. 언약사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하여 율법주의(Legalism)로부터 회개를 보호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폐기주의로부터 회개를 보호했다.

초기 뉴잉글랜드 청교도신학은 철저하게 칼빈주의이며 정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에서 있었다.

Mather)도 뉴잉글랜드 초기 청교도 신학인 칼빈주의 정통 개혁주의신학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코튼 매더의 신학은 그의 저서 "Magnalia Christi Americana", 영어로는 "The Glorious Works of Christ in America"("미국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일들") 의미이다.

이 책에서 코튼 매더는 뉴잉글랜드의 영광스런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며 초기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했는지를 적고 있다. 그리고 코튼 매더는 당시의 뉴잉글랜드의 과제는 새로운 과학에서 인과관계(cause-and-effect relationship)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하며 현재의 삶에서 경건을 회복해야함을 강조했다(당시 유럽에서는 물리적 세계의 법칙을 연구한 아이작 뉴턴과 마음의 법칙을 연구한 존 로크 사상이 유행했다. 이 사상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코튼 매더는 자기의 꿈과 비전을 수호할 좋은 제자도 없이 사망했지만 그의 노력 즉, 교리적 정통과 성경적인 경건생활을 융합하려는 매더의 노력은 18세기 뉴잉글랜드 지방의 대각성

학은 점점 더욱 현대화되는 세계가 요구하는 변화와 타협의 요구에 직면하였다. 그러므로 초기 청교도들이 세웠던 철저한 칼빈주의 신학은 점점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와 타협과 영적 침체가 급속히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뉴잉글랜드와 뉴저지 지역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다.

#### 영적 대각성 운동(1730-1770)

대각성 운동은 초기 청교도들의 칼빈주의신학의 원칙을 바꾸지 않았고 당시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법과 긴급한 메시지로 교인들을 일깨웠다(Renovation)이 아니라 Innovation).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들을 보면 중부 뉴저지의 화란 개혁교회 목사인 데오드르 프렐링후이센(Theodore J. Frelinghuysen, 1691-1747)과 장로교회 목사인 길버트 테넌트(Gilbert Tennent, 1703-1764)이다.

뉴저지 주 라리탄(Raritan)에 있는 네덜란드개혁교회는 1720년에 새로운 목사 데오드르 프렐링후이센(Theodore J. Frelinghuysen) 목사를 청빙했고 그는 유럽 경건주의의 중심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b>갈보라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74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다민족교회</b>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일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헌정기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3) 8021112, estross@yahoo.com 68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3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동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베: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 845-1512, Fax: (215) 8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벨렐교회</b>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 (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장영) 오전 11:30 디어베: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휴지, 유년, 종교동맹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lca.org 4313 Markham St., Attitash, ME 04911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 749-98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b>알칸사 제자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www.ajcc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b>앵커리지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용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442-0288, Fax: (215) 442-9037 706 Wilmer Rd., Horseshoe, PA 19044	<b>킬린은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 3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941-4447, www.mpcw.org 4313 Markham St., Attitash, ME 04911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laconcn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46)



##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생애와 작품들 (1)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 I. 존 오웬의 생애

##### 1. 존 오웬의 배경

'마지막 청교도의 신학자'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리는 존 오웬은 웨일즈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청교도 운동의 중반기(청교도 3세대)로 접어들어 1616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스타드햄(Stadham)의 옥스퍼드셔(Oxfordshire)에서 청교도 목사인 헨리 오웬(Henry Owen)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오웬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들은 명문으로 널리 알려진

속에서 신앙적인 훈련과 교양적인 훈련을 충분하게 받는 시기였다.

##### 2. 존 오웬의 학문의 기반

옥스퍼드 출신의 목회자이며 탁월한 신학자인 아버지와 외할아버지를 둔 가문에서 자란 존 오웬은 명석하고 천재성의 비범함을 보였는데, 그는 12살에 옥스퍼드대학에 입학하여 10년간 공부했다. 그는 학자의 기질이 있어 밤에 4시간의 수면만 취하며 학문적 탐구에 몰두하였다. 그는 종종 여가를 즐기기도 하였는데, 투창 경기를 즐겼

대학에 남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2년 선배인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를 만났으며, 이 두 사람은 철저한 칼빈주의 신학자 리처드 십스(Richard Sibbs, 1577-1635)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훗날 절친한 동료가 된 토마스 굿윈(Thomas Goodwin, 1600-1679)과 함께 오웬은 옥스퍼드대학교로부터 명예 신학박사(doctor of divinity) 학위를 수여 받았다.

##### 3. 영적 변화의 전환점

그는 정치에 있어서는 의회

동안 당시 유명한 에드먼드 캘러미(Edmund Calamy)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성 미가엘교회(St. Michael Church)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였다.

그날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캘러미 목사가 오지 않고 한 시골에서 올라온 무명의 목사가 설교를 대신하여 실망하게 되었다. 오웬의 친구는 다른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하는 교회로 빨리 가자고 말했지만 지칠 대로 지쳐있던 그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경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의 설교는 마치 오웬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

### 웨일즈 청교도 명문집안에서 출생,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 영국 방문 중 한 교회에서 무명 목사 설교 듣고 구원 확신

웨일즈 지방의 청교도들이었다.

외가(外家) 쪽 할아버지 루이스 오웬은 웨일즈의 귀족으로, 북 웨일즈 메리온넷 지방의 대법관과 부장관으로서 중요한 일을 국왕과 상의하는 위치에 있었다. 할아버지 험프리 오웬은 루이스 오웬의 손녀 수잔과 결혼하여 열다섯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가장 막내였던 헨리 오웬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였다.

헨리 오웬은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언어, 철학, 신학을 공부한 후 옥스퍼드셔 지방의 스타드햄 교회 담임목사가 되었다. 그는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던 중 막내 오웬을 낳아서 교회에 바쳤다. 존 오웬은 세 명의 형제들과 한 명의 누이와 함께 성장하였다. 오웬의 유년기는 성실하고 능력 있게 목회를 하던 경건한 청교도 목사이자 아버지 헨리 오웬과 어머니의 관심과 돌봄

며 롱 점프 선수였고, 풀뿔을 불었다. 웨일즈의 청교도 가문의 영향을 받아 하루 네 시간만 잠을 자면서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여서 훗날 건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성경 언어(히브리어, 헬라어는 물론)를 망라하여 라틴어와 고전어를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고, 학사와 석사과정을 거친 동안에 많은 독서와 탐구 능력을 길렀다. 그는 청교도 정신을 물려받아 고상한 학문과 청결한 양심의 가정과 학교에서 양육 받았다.

이런 청교도 집안의 3대에 걸친 기도와 학문의 밑거름이 청교도 신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데 기여한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로 기억되게 하였다. 그는 곧바로 학위를 받은 후 대학의 설교자로 부름을 받아서

당 지지자였다. 그가 학문을 하는 동안 아버지가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삼촌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결국 둘은 결별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오웬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런던으로 돌아오는 오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귀중한 선물을 예비해두고 계셨다. 그것은 바로 오웬의 영적 체험과 성숙이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시절부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근심해오던 것이 있었다. 그는 그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였다. 물론 그는 이미 신학적 지식을 많이 갖춘 실력 있고 학문에 찬 칼빈주의자였다. 하지만 자신의 결여되어 있었다. 그에게 있어 매우 중대한 변화는 친구들과 함께 런던을 방문하는

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이 무명의 설교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거늘'(마8:26)이란 본문으로 설교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 방문 목사를 통해 그의 심령에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역사하셨던 것이다. 런던에 돌아온 이후 그는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속에서 이전보다 더 격렬한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되었고 그에게 얼마나 깊이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지 약 3개월간 다른 사람과 교제나 대화하기도 힘든 상황이 될 만큼 극적인 체험이었다.

younsuklee@hotmail.com



##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 한부모모임(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1)

제가 섬기고 있는 한부모 모임은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있는데 격월로 이곳저곳 여행지를 다닙니다. 여행지에 도착하여 예배를 드리고 정성스런 음식이 나올 때면 알코올 생각이 절실해 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만찬에도 포도주가 나왔는데 식사할 때 한잔만 할 수 없느냐"고 합니다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분들은 딱 아쉬워하며 "알코올만 한잔 허락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고 충분히 절제할 수 있는데 이해해주지 않는 게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지난 10여년 한부모들을 만나 식사하면서 많이 나는 주제의 하나가 알코올음료에 관한 것입니다. 한 잔의 술은 '분쟁의 해결사며 서로간의 마음을 터놓게 한다', '감정 면에서 하나로 연결시킨다' 등의 긍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들자면 '술이 들어가면 지혜는 나가버린다', '술은 배신자로 처음엔 친구지만 곧 적이 된다',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발동이 걸리다보면 정지가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그밖에 '술은 슬픈 정서를 부른다'라고 하는데 배우자를 떠났던 지 오래 됐던지 아무튼 외로울 가능성이 높은 싱글 남녀가 같이 모인 자리인 만큼 정신을 흔미게 할 수 있는 음료는 불가할 것입니다.

### "알코올 한잔 안되나요?"

초기엔 저녁식사, 예배 등의 일정이 끝나고 취침시간이 되어 숙소에 들어간 후 누군가가 가방에 넣어진 알코올음료를 꺼내고 돌려 마신 후 가까운 편의점으로 가서 구입해 부족한 량을 채웠던 거 같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고 참석자간에 큰 다툼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히 그 음료만큼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선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때에 따라 포도주를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데요(요2:1-11; 마26:29), 정화시설이 부족했던 당시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적은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긍정적인 용어들을 술을 논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와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시지이다"(전9:7),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도다"(시104:15).

하지만 술 취함과 그 결과들을 죄라고 말합니다(잠23:29-35). 술 취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렘5:18). 결국 알코올과 다접촉으로 빠지기 쉬운 유혹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서로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삼가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더욱이 한부모모임에선 절대로 금해야 될 것입니다.

(이혼률의 증가로 한부모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이런 모임을 섬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은 kdrministry@gmail.com으로 연락주십시오) hyojungyoo2@yahoo.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세미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620-2004, www.nyseminary.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목양장교회</h4> <p>담임목사: 허진국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성경공부: 오전 10:00(토)</p> <p>Tel: (718)265-2584, www.nyc.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부르크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성경공부: 오전 10:00(토)</p> <p>Tel: (718)265-2584, www.nyc.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새벽별장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양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용), (917)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양무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Tel: (718)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철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www.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주산양교회</h4> <p>담임목사: 김희복 주일예배: 오후 1:30 다문화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구역모임</p> <p>Tel: (646)270-9037 kimheebok7@gmail.com 76-11 Woodside Ave, Elmhurst, NY 11373</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전 10:5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12: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p> <p>Tel: (718)861-2171, Fax: (718)861-3631 livingstonch.org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베이스айд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석 강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 오전 5:45 진교인발사역예배: 매주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st, Baysid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1시 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 50분 찬양예배 오후 3시 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사랑의등산교회</h4> <p>담임목사: 강진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p>	<h4>어린강역교회</h4> <p>담임목사: 유송혜 EM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s: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p>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p> <p>Tel: (845)848-2013</p>	<h4>온누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문취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p> <p>Tel: (845) 359-1458, http://onnews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07601</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986-4040, www.kpcny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아르헨티나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수요예배: 오후 7:00 7시 45분 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amp;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담임목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하늘 신학대학 교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6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p>



목회서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



박성규 목사 (주세음교회)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존귀하게 되는 길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 연단의 터널을 지나지 않고 존귀하게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빛으로 향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할 곳이 바로 어둠의 터널입니다. 비록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터널을 인내하며 지나온 사람들은 모두 존귀한 삶으로 인생이 마무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은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때에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서 글이 하나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앞에 떨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 크리스천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성찬식을 했는데 그것을 박해하는 자들이 사람의 피를 먹는 자들이라고 황제에게 고소하여 크리스천들을 모두 잡아 죽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살기위해 로마시내 한복판에 있는 땅굴 속으로 숨어들어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그 후로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기독교화 되고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은 한사람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1:2에 기록된 대로 어떤 전염병도 악성 바이러스도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안고 나가는 크리스천들을 해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겁먹고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지 적극적으로 고국과 미국을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삶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넘치고 은혜 더해지는 교회로”

시애틀비전교회 고창훈 담임목사 위임예배

시애틀비전교회 고창훈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지난 16일 예배시간에 거행됐다. 고창훈 목사는 “시애틀비전교회 성도들 감사하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시애틀비전교회가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회중들에게 은혜가 더해지는 교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눔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강함은 주님께서 주시기에 주님의 역사로 일어난다”고 말하며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게 되며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말하고 “시애틀비전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포로 이어졌다. 이어서 박종원 시애틀비전교회 원로목사부부, 류승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김승욱 목사(분당할렐루야교회), 박성규 목사(부산부전교회), 백동주 목사(목포사랑교회), 고석찬 목사(대전중앙교회), 스티브 유 목사(새들백교회)가 영상으로 축하했다. 시애틀비전교회 성도들도 환영 영상을 만들어 고창훈 목사의 위임을 축하했다. 이어 고창훈 목사가 답사했으며 유동수 윤기연 집사가 축가를 불렀다. 이어 위임과 증정, 담임목사에 대해 교인들이 축복송을 불렀다. 이날 예배는 고창훈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시애틀비전교회 담임목사 위임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도/칼럼: 아침은 그날의 십일조. 아침은 “아직 이르다”라는 뜻, ‘아직’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아직 이른 하루의 첫 시간. 이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성과, 인생이 결정됩니다. 아침을 피곤하게 시작하는 것과 상쾌하게 출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영국신문 The Telegraph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침 습관” 14가지로 소개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기업 임원 10명 중 9명은 새벽 6시 이전에 일어나 독서를 하거나 조깅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명상을 즐기거나 감사한 일들을 메모하고 그 날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늦잠을 잔다거나 쓸데없는 잠점으로 침대에서 뒹군다면 늘 뒤처지며 퇴행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게으른 자를 향해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고 했습니다. 침상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쉼.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궁핍이 군사같이 이룬다고 경고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아침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맞이한 아침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 캄피스는 ‘그리스도를 받받아’라는 책에서 아침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을 맞이할 때 저녁까지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녁이 되었을 때 다음 날 아침에 살아 있을 것이라고 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항상 대비하십시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이 찾아오



박현수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는 일이 없도록 삶을 사십시오.” 매일 아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침은 하루의 골든타임입니다. 두뇌가 가장 맑고 깨끗한 시간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시대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아침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예레미야, 에스겔,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침은 그날의 십일조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1:35). bible66@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A grid of 48 church listings including: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사랑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가족원, 은혜한인교회, 주세음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존의마을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하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동부교계 게시판

## 카리스마 리바이벌

글로벌웨슬리영성목회 네트워크(공동대표 이성철, 한의준, 김정호)가 주최하는 “카리스마 리바이벌(Charisma Revival)”이 2월 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후러신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앤드류 박 교수(호하이오감리교연합신학교), 이성철 목사(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김성찬 목사(뉴욕롱아일랜드 서지방감리사)이며 등록비는 전액 장학금(숙소 및 식사비용)을 지급한다.

▲문의: 김진우 목사(joshua@metchurch.org) 양민석 목사(lilyumc@hotmail.com)

## “Teen Gospel Course” 17기 개강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가 대화와 변증으로 복음을 배우고 경험하는 틴에이지 자녀들을 위한 “Teen Gospel Course” 17기를 개강한다. 1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미주동부시간) 6주간 줌화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영어로 진행된다. 등록비는 60달러. www.wooltariUS.org

▲문의: (646)300-4790

## 뉴욕장로연합회 신년하례 및 12회기 이취임식

뉴욕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 2022년 신년하례 및 12회기 신규임원 이취임식 예배가 1월 30일(주일) 저녁 5시 뉴욕 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17)204-9879 황규복 장로

## 대한민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연례기도회

대한민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연례기도회가 한국 대통령선거 직후인 3월 12일(토) 오전 8시 뉴욕그레이트넷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 뉴저지 지역은 대면으로 그 외 지역은 줌으로 함께 한다. 이날 특별찬양은 뉴저지목사합창단과 뉴욕장로성가단이 맡는다.

▲문의: (917)841-7552

## 청소년 HBS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가 2월부터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Healthy Brain Scholars(이하 HBS)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HBS는 대학진학에 필요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 등을 극복하도록 전문적 상담을 함께 제공한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건강한 커뮤니티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이 HBS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다. 참가대상은 뉴욕/뉴저지 거주자로 저소득층 11학년 한인학생으로 교육기간은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년간이며, KACF(한인커뮤니티재단) 후원으로 전 과정 무료. 프로그램 신청비(deposit) 400달러는 모든 교육과정 수료시 전액 환불된다. 접수마감은 1월 30일(주일),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2월 10일(목). 프로그램 신청방법, 에세이 주제, 저소득층 소득 가이드라인 등 자세한 사항은 패밀리터치 홈페이지(www.familytouchusa.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201)242-4422, info@familytouchusa.org

## 러브뉴저지 꿈나무연합주일학교 출범

‘러브뉴저지’ 교육분과가 주관하는 ‘러브뉴저지 꿈나무연합주일학교’가 2월 6일(주일) 오전 11시 펠리사이드 팍에 소재한 ‘네이버플러스’에서 첫 주일예배를 시작된다. ‘꿈나무주일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주일학교의 자체적 운영이 용이하지 않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예배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담당자 이수천牧사는 프린스턴신학대학원을 졸업(Th. M., Christian Education/M. Div. and M.A.)하고 찬양교회와 뉴저지필그림선교회, 아름다운교회에서 청소년 및 유년부 담당 목회자로 사역했으며 현재 ‘러브뉴저지’ 교육분과에서 AWANA전문 사역자로 섬기고 있다.

▲문의: 이수천 목사(808-741-7979) 박근재 목사(201-647-7766)

## 미국 개혁주의신학의 역사

(7면에서 계속)

죄의 본성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을 변화시켜야 한다.

신학적 용어로 에드워즈는 “중생(하나님의 행위)이 회심(회개)과 믿음, 우리의 행위의 기초”라고 주장했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중생이 회심(믿음과 회개)보다 앞선다(Regeneration precedes faith and repentance). 이것은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이다.

에드워즈의 인간론(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반대자들에게 에드워즈는 “원죄”(Original Sin, 1758) 책을 통하여 반대자들을 비판하며 자신의 교리를 방어했다. 이 책에서 인류 전체(human as a whole)는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범죄할 때 그곳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하여 타락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은 모두 모든 행동을 할 때 죄로 기울어져 있다고(to-ward sinning) 주장한다. 이것은 전통적 칼빈주의 사상, 인간의 전적타락의 교리이다.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책 “신앙감정론”(Religious

Affections, 1746)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의 신앙체험(religious experience), 혹은 신앙적인 감정을 매우 정교하게 분석하고 성경적으로 설명한다(지금까지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됨).

“신앙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은 영적 감정의 양이나 혹은 그 강도가 아니다”(It is not the quantity of religious emotions or their intensity that proves their reality).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변화된 마음에서 출발한다”(It is rather that they originate in a heart that has been changed to love God and seek His pleasure)“

이 변화된 마음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다.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변화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힘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가 흘러나온다. 에드워즈는 성화의 기초는 중생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1765년 에드워즈의 사후에 출판된 “참된 미덕의 본질”(The Nature of True Virtue)에서 “참된 덕은 존재를 합당하게 사랑하는 것”(love to Being in general)이라 했다.

에드워즈는 진정으로 선한 모든 것은 (가장 순수한 존재로서

# 부회장 박근재 목사, 이견일 장로

## 제35회기 뉴저지교협 임시총회, 감사 최다니엘 사관 윤석래 장로

제35회기 뉴저지교협(회장 고한승 목사)이 1월 18일 오전 10시30분 뉴저지연합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목사 부회장에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 평신도 부회장 이견일 장로(시온제일교회), 감사 최다니엘 사관(구세군잉글우드한인교회)과 윤석래 장로(뉴저지연합장로교회)를 선출했다.

뉴저지교협은 지난해 9월 3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부정 논란이 있었던 투표 결과로 단독 부회장 후보로 출마한 육민호 목사가 당선되지 못했으며, 당



제35회기 뉴저지교협 임시총회를 마치고 임원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시 사회를 보았던 고한승 목사가 혼란 속에 평신도 부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지 않고 서둘러 폐회를 선언했기에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부회장들과 감사들을 선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34회기 선관위(위원장 장동신 목사)와 35회기 선관위(위

원장 윤명호 목사), 지난 정기총회 시 부회장 후보였던 육민호 목사 등 관련된 문제와 발언 등이 있었다.

요약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임무는 총회 3개월 전에서부터 다음 총회 3개월 전까지 △감사를 임원이 추천할 수 없다 △재선거 하려면 후보는 육민호 목사가 돼야 한다 △34회기 선관위의 자가당착이다 등의 주장이 오갔으며 지난 총회의 후보였던 육민호 목사는 자신은 사퇴하겠다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라고 말했다.

또 회원 김주동 목사는 ‘법과 절차 무시하는 일렁뚱방 하지 말라’고 발언했다. 여러 발언들이 오간 후 양준길 목사는 “뉴저지교협이 참으로 위대하다. 법으로 따지고 그에 대한 해석을 다 들었다. 그리고 법위에 덕으로 덮었다. 연합과 화합을 위해서”라고 말했으며 회의가 진행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플러스 소세 뉴욕선교사의 집 건물

## 사역 임시중단 뉴욕선교사의집

한인교회 지원 이어져...베이사이드장로교회, 뉴욕수정교회

뉴욕선교사의집 플러스 건물 이 매물로 나온 가운데 사역이 임시 중단됐다. 뉴욕선교사의 집 대표 최문섭 장로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는 건물 혹은 새로운 건물을 놓고 기도 중에 있다.

뉴욕선교사의집은 그동안 준비했던 재정 30만 달러와 지난해 10월 긴급 기자회견 이후 모금된 후원금 20여만 달러 등 50만 달러가 준비됐다. 그러나 이 금액으로는 선교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 교통

편한 한인 타운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한인교회들의 지원이 계속 이어져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 1만 달러, 뉴욕수정교회(담임 황영송 목사)가 5천 달러를 후원했다.

뉴욕선교사의집은 2007년 개원부터 매년 800-1000명의 선교사들이 이용해왔다.

▲후원문의: (516)721-8101 최문섭 장로

(유원정 기자)



더나눔하우스 박성원 목사(왼쪽)와 안스클러너 전일웅 장로

## 더나눔하우스 물품 및 후원금 답지

미주한인노숙인 쉼터비양리

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인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까지) 진정한 가치에 따라 대우하는 것이 “미덕”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처럼 취급하는 것(to treat God like a man), 혹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취급하는 것(to treat a man like God)은 참된 덕을 어기는 일이며 그것은 곧 죄의 방향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구속주, 섭리주로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는 것이 곧 미덕이며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는 일이 곧 미덕이다. 인간의 귀중성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인간의 귀중성이 존재한다.

“참된 덕은 존재를 합당하게 사랑하는 것”(love to Being in general)이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러한 시도는 매우 철학적이거나 논리적인 동시에 그의 사상의 기초는 정통적인 칼빈주의이다. 그의 사상체계의 범위는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 논리학, 심리학, 물리학, 미학, 천문학 및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에 확장되어 있다.

KHL0206@gmail.com

기관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에 후원금이 답지되고 있다. △1월 17일 뉴욕수정교회(담임 황영송 목사) 5천 달러 △21일 안스클러너(대표 전일웅 장로) 겨울외투와 코트, 후원금(사진). 더나눔하우스는 쉼터구입을 위해 모금을 하고 있다.

(기사제공: 더나눔하우스)

## “엘리아의 패기를 본받으라”

한기부(뉴욕) 영성회복 복음통일 구국기도회 및 시무예배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한기부)(뉴욕) 영성회복 복음통일 구국기도회 및 시무예배가 1월 20일 오전 10시30분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지회장 김경열 목사는 참석자들을 환영하며, 오는 5월 뉴저지교회 창립을 알리고 뉴욕과 뉴저지가 미동부지역에서 한기부 사역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배는 육민호 목사(주소원교회) 인도로 대표기도 박현영 목사(퀸즈순복음교회), 설교 장석진 목사(자문위원, 교협총경회장), 통성기도, 헌금기도 심화자 목사(은혜와진리교회), 신년사 김희복 목사(뉴욕교협 회장), 축가 김영환 전도사, 영상축사 양민석 목사(교협 총경회

장)와 송일현 목사(한기부 이사장), 인사 및 광고 김경열 목사(뉴욕지회 대표회장), 축도 노재화 목사(전 성결대학교 학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석진 목사는 왕상 18장 21절을 본문으로 “엘리아의 패기를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기부(뉴욕) 구국기도회 및 시무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을 전했다.

통성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윤섭 목사(뉴욕그리스도교회) △한인 디아스포라 교계를 위해 문산성 목사(페어필드한인교회) △한기부를 위해 김재호 목사(시온산교회)가기도를 인도했다.

한기부뉴욕 2월 모임은 17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영안교회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자세한 내용은 http://tongdok.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원정 기자)

# “건강한 신앙을 위해 노력” 신용 회장

##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회장, 이사장 이취임식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 연합회 42대 회장, 40대 이사장 이취임식이 22일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한 신용 회장은 “부족한 저를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OC전도회연합회 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신앙의 공동체, 지역의 공동체, 이민자들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연합회, 아름다운 전통 이어가는 연합회 되도록 하겠다”며 “평신도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때 교회가 건강하고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신념으로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우경 이사장은 “연합회가 장년의 시기에 들어갔다. 가장 최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OC전도회연합회 이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오른쪽아래 원안은 이날 취임한 신용회장이 연합회기를 흔드는 모습

윤강혁 부회장 사회로 열린 이취임식은 신영세 장로(부이사장)의 연합회 소개와 회기전달식이 있었다.

이어 민길 41대 회장이 이임인사를, 신용 신임회장과 윤우경 이사장이 취임 인사했으며 이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취임회장과 이사장에게 취임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신용회장이 신임 회장단 및 임원소개를 했다.

이날 박재만 목사(OC교협부회장), 미주장신대 이사명 총장, 김생수 장로(OC장로협회장)가 축사했으며 영길 연방하

원의원, 미셀박스틸 연방하원의원, 토드스피처 OC감찰총장, 신현철 목사(전주마음교회 담임)가 영상으로 축사를 했다.

아이노스선교단이 축가를 불렀으며 이성우 목사(크리스천헤럴드선교회 대표)가 축복과 마침기도를 했다.

한편 이날 한창훈 장로(부이사장) 사회로 열린 감사예배는 전홍 장로(이사)가 기도했으며 테너 전성진 교수가 특별 찬양하고 구봉주 목사가 ‘땀수같은 하나님의 일꾼(잠25: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는 구봉주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올해 ‘세계기도일’은 3월 4일

전 세계 여성 기독교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세계기도일(World Day of Prayer)’ 예배가 올해는 3월 4일(0)에 개최된다. 135주년을 맞는 올해 예배문 작성국은 잉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로, 이들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작성한 기도문을 전 세계 기독교연합회 여성교인들이 함께 읽고 세계 각지에서 합심기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세계기도일 주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렘29:1-14)다. 세계기도일은 1887년 메어리 제임스 여사(미국장로교 국내선교부 의장)가 당시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정한 데서 유래해 전 세계로 확산됐다. 미국의 경우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1979년부터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다.

## “하늘가는 밝은 길 영원한 기독교”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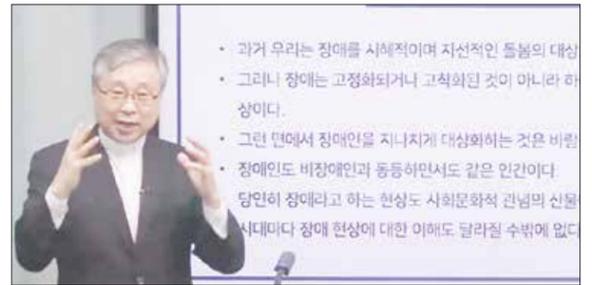
주영세 목사(주영훈 박사 성경연구원장)의 저서 “하늘가는 밝은 길 영원한 기독교”가 출간됐다. 저자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어려운 세상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과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북돋아 주려고 이 책을 들었다고 밝혔다. 책값은 우송료 포함 25달러이며 책구입 및 저자 연락처는 P.O.Box 6267, Buena Park, CA 90622 ▲이메일: yeongiyoo@gmail.com

## KAPC개혁장로회대학(원) 2022년도 봄학기 학생모집

KAPC 직영신학교인 KAPC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총장 이정현 박사)이 2022년도 봄학기 학생모집을 하고 있다. 모집과정은 목회학박사(D.Min), 신학박사(Th.D), 신학사(BBS), 기독교교육학석사(MCE), 목회학석사(M.Div), 편집생과정, 편목과정이다. ▲문의: (626)675-8010

## 그레이스미션대학교 2022년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2022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교차문화철학박사(Ph.D), 선교학박사(D.Miss), 목회학석사(M.Div), 기독교교육학 석사(MACE), 교차문화석사(MAICs), 기독교상담학석사(MACC) 및 학사(BACC), 신학사(BA)다. ▲문의: (714)525-0088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 세미나에서 이준우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 ‘장애인과 함께 가는 교회사역’

##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 세미나, 강사 이준우 교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장애인과 함께 가는 교회사역’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 세미나를 20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강사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공동체라면 장애를 갖고 있던지 유무와 상관 없이 모든 이들이 당당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어야 하며 예배드릴 때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많은 장애인들을 돕는 차원에서만 생각했다. 더불어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장애를 갖고 계신 자들도 당당한 주인공으로 교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의 소중함을 담보로 그들이 주체적인 존재로 세워져 다른 이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공생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는 성경적 관점에서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면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자매를 소중히 존중해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며 “진정한 살림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나라의 영향력이고 본질적 속성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하나님나라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교회사역”이라 말했다.

그는 “장애인선교를 복음전도도 장애인복지를 통합시킨 장애인복지선교가 교회에 필요하다”며 “실천적인 선교행위를 통해서 장애인의 진정한 영적,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직업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장애는 모든 사람이 갖



나성한인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예배를 마치고 성회원들이 케익막을 하고있다. 사진 오른쪽아래는 이날 임직받은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 안수집사 3명 권사 4명 임직

## 나성한인교회 설립46주년 기념 주일예배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 설립 46주년 기념주일예배가 지난 16일 예배시간에 열렸다.

신동철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했고 편한 마음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건물이나 신도들의 모임이 절실히 깨닫게 된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교인들이 전도, 선교, 봉사, 친교한 모든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다. 46년 맞아 성도들이 서로 소중히 여기고 모여 예배하기 힘쓰는 나성한인교회 되기를 축원한다. 함께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신동철 목사 사회로 오전 11시에 열린 예배는 조이찬양팀이 찬양인도, 임종훈 장로 기도, 호산나 찬양대 찬양, 창립 기념 영상소개로 이어졌다. 이날 김영진 목사(본 교회 2대 담임)가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눅23:39-4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영진 목사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다. 함께 달린 자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모욕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야 그리스도임을 믿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복음은 귀한 것이다. 인생을 잘못산 자일지라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 구하면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며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가리지 말고 복음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세상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세상의 문은 닫히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다. 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축복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가 우리구원이 완성된다.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의 가족이 된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죽음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입성의 시간이다. 주님 앞에 상 받고 칭찬받을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축복은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은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하늘나라 혼자가지 말고 복음을 전해 함께 가는 자들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창립기념 연주가 있었으며 본 교회 파송으로 20년 3개월간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한 한종철, 한민은 선교사와 12년 3개월간 몽골에서 사역한 허성근, 허지훈 선교사에게 감사패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임직식에서는 김애라 권사 등 4명, 김효근 집사 등 3명에게 권사와 안수집사 임직을 했다. 축사와 권면은 김철원 목사(말씀사랑훈련원 대표)가 전했다.

이날 예배는 김영진 목사 축도로 마쳤다.

예배 후에는 설립 46주년을 축하하는 케익커팅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플라워마운드교회 창립23주년 감사예배에서 김경도 목사(사진왼쪽)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올바른 교회...유익한 목사 되겠다”

## 플라워마운드교회 설립 23주년 감사예배

플라워마운드교회(담임 김경도 목사) 설립 23주년 감사합동예배가 23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김경도 목사는 “한인교회가 없던 이곳에 복음의 깃발 꽂은 지 23년 됐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흥케 하셨다. 팬데믹 동안 성장 부흥케 하셨다. 그 은혜 속에 성도들의 눈물 기도 희생수가 있었다. 이날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란다.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한다”며 “저 자신부터 유명한 목사가 아닌 유익한 목사가 되도록 하겠다. 신앙의 본질에

서 벗어나지 않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익한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찬양과 김경도 목사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김진환 안수집사가 기도했으며 웬시바 성가대 찬양이 있었다.

이어 23년간의 역사를 담은 영상이 소개됐으며 윤원상 목사(저먼타운침례교회), 박정호 목사(필라델피아하인침례교회) 축사가 영상으로 진행됐다.

이어 김경도 목사가 ‘올바른 교회(딤후3:14-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 미주장신대 릴리재단으로부터 그랜트 받아

## 차세대 리더십 함양 및 신학교육기관 발전 공모전 채택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사명 박사)가 종교, 교육 및 공동체 개발분야를 지원하는 박애주의적 후원기관인 릴리재단(Lilly Endowment Inc.)으로부터 99만9,198달러의 그랜트를 수상했다.

이번 그랜트는 캐나다 포함 북미주 신학대학원협의회(Association Theological Schools, 이하 ATS)가 종교, 교육 분야 및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를 지원하는 릴리재단으로부터 후원받아 270여개 신학교육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차세대 리더십 함양 및 신학교육기관 발전 관련 프로젝트 공모전에 미주장신대 제출안이 채택된 쾌거라 할 수 있다.

세 단계로 실행된 이번 프로젝트 공모전에 240여개 ATS 회원학교가 참여했으며 한어권 사역자들과 영어권 사역자들 사이의 파트너십 강화와 협력 리더십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를 제시한 미주 장신대는 1단계에서 5만 달러, 2단계에서 1백만 달러를 각각 수령했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영어사역자 양성은 물론 다문화, 다민족 학교로 탈바꿈해 ‘선교지향적 신학교육기관’으로서 나아가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팬데믹으로 인해 급

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맞춰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신학교육 콘텐츠, 플랫폼, 우수교원 확보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사명 총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미주지역 한인교회들의 해묵은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KM(Korean Ministry)과 EM(English Ministry) 사이의 갈등문제에 대해 다뤘는데, 교회현장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워 신학교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두 그룹 사이의 협력리더십을 고양시켜 주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목회학석사(M.Div.) 과정에 관해 기관해 프로젝트로 제출한 결과 재단으로부터 채택돼 그랜트를 수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계속해서 “우리는 1세 중심의 신학교육에서 1.5세와 2세가 함께 신학교육을 받는 구조로 재편하고 이에 걸맞는 실제적 신학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 가을학기부터 M.Div. Concentration in Professional Chaplaincy를 개설해 1세는 물론이고 1.5세와 2세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세대간 통합 신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앞으로 1.5세와 2세를 매년 10명씩 리크루트해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2026년에는 본교 목회학석사 과정에 50명의 1.5세와 2세 예비목회자(사역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등록해 교육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장신대

## 연합기관 ‘통합시계’ 속도 차

적극적 한기총반해 한교총숨고르기...한교연 통추위 구성도 안해

기독교 연합기관 통합의 시계가 기관마다 다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임시대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다음 달을 통합의 마지노선으로 두고 적극 합의로 논의를 촉구하는 반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은 숨 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지난해 총회 이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한기총은 18일 회의에서 통합 추진을 위한 정관 제정 실무위원 3명을 선정하고 한교총에 조속한 만남을 제안했다. 위원들은 대표회장 체제나 대의원 자격 등 서로 다른 정관을

하나로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한기총은 앞서 지난 10일 열린 신년하례회에서 통합 기한을 2월로 한정해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김현성 임시대대표회장은 “통합 논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2월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한기총도 임시총회를 열어 새 대표회장을 뽑을 예정”이라며 “일주일 만에 두세 번이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 2월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지난 7일 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한기총 회원 중 이단성 논란이 있는 교단들을 검증하는 위원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교단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정하지

못했다. 지형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한교총 내부에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소강석 한교총 통합추진위원장은 “통합을 급하게 진행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기에 절차를 밟아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며 “내부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찬성하는 쪽이 대세다. 설 연휴 전에 한기총 측과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교연은 새 회기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위원장을 맡았던 권태진 목사는 “한교총과 한교연은 추구하는 성격이 맞지 않아 내부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기총은 아직 임시대대표회장 체제이기 때문에 기관이 안정되면 통합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올 4월 17일 부활절 연합예배

대회장은 이상문 예성총회장,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이 희망!’ 주제

2022년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4월 17일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이 희망!’을 주제로 열린다. 대회장은 이상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이자,

준비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서 제1차 준비기도회 및 임시회의를 열고 “3월까지 매달 한 차례 준비기도회를 열어 연합예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대회장을 맡았던 류영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은 이날 대회장 직을 사임했다.

류 총회장은 “부활절 연합예배는 새 대통령이 선출된 후 열린다. 따라서 정부에 한국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비롯해 준비할 부분이 많다”며 “올해 총회장을 비롯해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을 맡는 등 감당해야 할 사역이 적지 않다. 연합예배에 전념할 수 있는 분

이 대회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내려놓게 됐다”고 말했다.

류 총회장을 대신해 대회장이 된 이상문 총회장은 “올해 연합예배는 이미 지난해 예배가 끝난 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왔기 때문에 대회장이 바뀌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교단이 대영교단과 소영교단의 중간이다. 양측의 의견을 잘 조율해 연합의 의미를 살리겠다”고 전했다.

준비위원회는 3월까지 매달 한 차례 준비기도회를 열고 연합예배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100년 전 선교사, 서울을 기록하다’

서울역사박물관 발간 학술총서, 드류대 보관중 180장 뽑아

100년 전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과 한국 사람이라는 피사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그리고 100년 후 선교지에서 사역 중인 한국 선교사들은 이 사진을 어떻게 봤을까.

서울역사박물관이 지난 20일 발간한 학술총서 ‘100년 전 선교사, 서울을 기록하다’에는 1910-20년대 서울의 일상을 본 선교사들의 시선이 담겨 있다. 박물관은 2020년부터 미국 소재 서울학 자료 수집에 나서 뉴저지주 드류대 도서관이 소장한 ‘미국 연합감리교회 아카이브’에서 서울 사진 3200장 중 180장을 뽑았다. 드류대는 1867년 감리교 신학교로 설립된 명문 사립대다.

아카이브에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건너와 사역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박물관 측은 사진에 의미를 부여한 건 선교사들의 시선이다. 정지희 학예연구사는 “일제 때 엮서 등의 형태로 사진 자료가 있기는 한데 일본이 찍은 건 관광용이거나 식민사관을 대입시켜 풀이하는 홍보용 사진”이라며 “이에 반해 선교사들은 사람들의 삶 속에 가까이 다가가 풍경과 생활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6개 주제엔 서울거리 풍경, 한양도성과 궁궐, 학교, 병원과 의학교, 일상생활과 함께 교회 가 따로 분류돼 있다. 교회 사진엔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광희문교회, 중앙교회의 전신인 종로교회의 당시 모습을 볼 수 있다. 일상의 사진에는 미국 선

교사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펼쳤는지 도 엿볼 수 있다. 병원이나 학교는 당시 미국 선교사들이 펼친 주요 선교 사역을 보여준다.

해외에서 사역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도 이번 총서 발간을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파라과이 배안호 선교사는 “일반 여행객이 보는 관점과 선교사의 시선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서 “사진 기술은 없지만 사진 찍기를 계속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태국 오영철 선교사도 “사진 작가는 아니지만 제가 찍은 사진이 역사적 사료가 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며 “카렌족 저널리스트에게도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듯하다”고 전했다. 오 선교사는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서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난민을 돕고 있다.

## CTS, ‘2022년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감경철, 이철, 류영모, 배광식 공동 총재)는 20일 서울 노량진 CTS 아트홀에서 ‘2022년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아동 교육과 돌봄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국 5만여 교회가 아동 돌봄과 교육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한국 교회의 참여를 호소했다.

심포지엄은 주제 발표를 받은 정의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를 비롯해 임원선 교수(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김아래미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조주희 목사(사더블어베움 이사), 옥경원 대표(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송민경 대표(아이돌봄맘모임) 등 아동복지, 보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장현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다음세대가 행복한 아동 돌봄 정

책의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이끌었다.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정책 가운데 아동 돌봄의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 교수는 “가족 규모의 축소, 맞벌이 가정의 증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아동 돌봄이 위기에 있다”면서 “아동 돌봄 육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아동 돌봄 서비스 주체는 3개 부처 8개 돌봄 체계로 분산돼 있고 부처·체계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아동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아동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회(종교시설) 간 협력체계를 확보해 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을 기초 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성을 반영한 돌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아동 돌봄 서비스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시

했다. 토론에 나선 5명의 학계·현장의 전문가들도 ‘아동 행복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 중심·아동 친화적인 아동 돌봄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각각의 대안을 제시했다. 임원선 교수(신한대 사회복지학과)는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개입해

## “목회자 이중직 현실적 해법 급하다”

보수교단 예장합동 교단차원 첫 공개 세미나

‘목회자 이중직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한국교회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교회 대표적 보수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배광식 목사)은 20일 대전중앙교회(고석찬 목사)에서 공개 세미나를 열고 목회자 이중직 실태 점검, 신학적·목회적 논의에 나섰다. 예장합동이 ‘목회자 이중직 문제’를 주제로 교단 차원의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 건 처음이다.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이사장 이상복 목사) 산하 목회자 이중직 신학전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양현표(총신대 신대원) 교수는 “교단에 속한 1만 2000여개 교회 중 절반이 미래 자립교회(미자립교회)이며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와 함께 이

들이 겪는 생존 위협은 날마다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회자 이중직 문제는 ‘목회 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적극 대응’이란 주장과 ‘생존에 앞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며 한국교회와 논쟁을 이어온 주제다. 양 교수는 “‘두 직업 목사(Bi-vocational pastor)’를 바라보는 양측 견해 모두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 환경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지난해 8월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총회장 류영모 목사)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이중직을 결정할 때 가장 큰 고민으로 ‘교인들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우려’(43.2%)를 꼽았다. ‘목회자로서의 정체성’(40.9%) ‘주변 목회

자들의 시선’(35.9%)이 뒤를 이었다.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목회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역사신학적 관점에서 목회자 이중직의 가능성을 조명한 김요섭(총신대 신대원) 교수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존중한다면 그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사역을 존중해야 하며, 이 존중은 사역에 전념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목사의 생활을 보존하는 헌신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교단 차원의 지속적 노력이 필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박행 교회자립개발원 이중직지원위원회 총무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목회자에게 적합한 이중직종 개발’ ‘총회법의 완전 허용’ 등 이중직 목회자들의 현실적 요구가 쏟아진 것을 기억하고 노회와 총회 차원의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1만 미자립교회’ 전도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의전함, ‘복음광고키트’ 무료지원 캠페인

어려운 현실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미자립교회의 사명을 위해 새복음의전함(이사장 고정민 장로)이 지원에 나섰다.

고정민 이사장은 “한 성도로부터 ‘매일 전도를 나가는데 교회재정으로는 전도지 구매가 어려워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며 미자립교회의 어려움을 전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며 “코로나19는 미자립교회에 더 큰 직격탄을 날렸다. 간단한 전도지 구매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미자립교회 상황은 이런 현실의 심각성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고 이사장은 “코로나19에도 멈출 수 없는 복음 전도사역에 미자립교회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의전함이 도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복음의전함이 지난해에 이어 한국교회와 함께 펼치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을 통해서

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심기 캠페인’은 광고관에 복음 메시지를 실어 전도하는 선교캠페인이다. 광고관에 배우 신현준, 윤은혜 같은 유명인의 사진과 함께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with Jesus”라는 문구를 실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호기심을 이끈다.

지난달 5일 개설한 온라인 전도플랫폼 ‘들어볼까’다. 웹사이트 ‘들어볼까’에는 비기독교인

에게 복음을 친숙하게 전하기 위한 유명인의 간증 영상과 기독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회자들의 짧은 설교 영상 등이 담겼다.

복음의전함은 이 온라인 전도 플랫폼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전나들목 부근 야외광고관에 광고를 게재 중이다. 또 성도 개개인이 복음광고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용 차량스티커를 나눠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볼까’를 알리고 있다.

## ‘은혜의 70년, 여호와께 돌아가자’

## 한국CBMC 70년사 발간

한국기독교실업인회(한국CBMC·중앙회장 이대식)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CBMC 70년사’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책의 부제는 ‘은혜의 70년, 여호와께 돌아가자’이다.

제1부에서는 국제CBMC 출범과 한국CBMC의 해외 사역을 수록했다.

제2부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는 주제로 한국CBMC 성장과 각종 사역에 대해 설명했다.

이대식 한국CBMC 중앙회장, 이승을 직전 중앙회장 등 CBMC 회원과의 특별 좌담을 2회 실었다.

나이가 복음의전함은 ‘교회차량 복음광고판’ 전략도 펼치고 있다. 교회차량에 복음 메시지가 담긴 광고판을 부착해 온 동네를 누비며 예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복음의전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음광고 캠페인에 동참하지 못하는 미자립교회를 위해 ‘복음 광고 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만개 미자립교회에 ‘교회 차량용 복음광고키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복음광고키트는 미자립교회라면 어느 교회이든 받을 수 있다. 복음의전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록으로 CBMC 회원들의 다양한 간증이 담겼다.

이대식 중앙회장은 “비영리 선교단체가 70년 동안 꾸준히 사역을 펼쳐왔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발간 소감을 밝혔다.

CBMC는 크리스천 실업인과 전문인 모임이다.

비즈니스 세계의 직장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 영적 리더로 세운다. 전 세계 96개국에 조직되어 있다.

한국CBMC는 국내 280여 개 지회, 해외 39개국에 130여 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회원 7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야 하며, 돌봄 서비스를 다양하게 설계해 부모들이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아동 돌봄 서비스 예산을 쓰는 부서들을 보면 유사 중복이 많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통합 관리, 재편성하는 노력은 물론 우리 세금이 다음 세대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래미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교회의 역할에

하지만 돌봄 체계 안에서 운영할 때는 여느 다른 돌봄 방식과 같이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지치제의 관리 감독,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채용, 회계 형평성 등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세심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옥경원 대표(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아동 돌봄에 대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공교회성을 역설했다. 옥 대표

전했다.

조주희 목사(성암교회, (사)더블어베움)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성암교회가 아동 돌봄과 교육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와 협업했던 지난 15년간의 사례, 교회가 돌봄 서비스를 할 때 갖춰야 할 제반 여건에 대해 나눴다.

그는 “첫째는 신학적이고도 목회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한국 교회에는 성장이론 운영 관리에 교회를 주로 사용했다. 지역사회와 만날 때 교회가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인가에 대한 정리다. 둘째는 전문성의 확보다. 지역사회와 교회가 만날 때 교회 내부 사역과는 전혀 다르다. 지역사회는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영역이다. 교회는 어떻게 이 전문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교회가 내적 지원을 어떻게 사 용해서 함께 키울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지나치게 선교적 논리를 가져서도 안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다음세대를 세우는 돌봄, 한국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해 강조했다. 그는 “돌봄 시스템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아주 좋은 자원이다. 지역사회에 5만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 아이들이 가깝고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시설을 운영할 때 교회만의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운영도 가능

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영성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가 성육신이었던 이, 교회도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과 돌봄 공간을 공공재로 공개할 때 ‘내 것’이라는 소유 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근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국 교회가 아동 돌봄과 교육을 통해 행복한 다음세대를 위한 사회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2)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살아가는 요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가능하기가 어렵다. 눈만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굴의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인 눈 화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안과를 찾아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마스크를 쓰고 보는 사람과 마스크를 벗고 달린 인상의 차이가 두드러진 사람들을 경쟁하듯 보여주는 컨테스트도 있다고 한다. 사람을 한쪽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눈과 얼굴의 모든 부분을 합쳐서 보아야 제대로 그 인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교회의 선교를 여러 면에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도 같은 것이다.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지에서는 선교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스며드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같은 비접촉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는 선교 상황에서 선교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이다.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낼 때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데살로니가

게 배달된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내 이름으로 온 것이라면 조심스럽게 열어볼 것이다. 내 이름이 아닌 누군가에게 온 것이라면 바로 돌려 보내거나 수취거절을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메시지만 전해지면 그만이지 라고 말한다. 아니다. 내용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 의심스럽다면 함부로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편물을 의심하지 않고 받는 것은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나 운송 회사를 믿고 받는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일생을 바치거나 대를 이어 살아가는 것도 신뢰가 오랜 시간동안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하나는 "utang na loob"이다. "마음의 빚"을 가진다는 말이다.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을 때 나는 마음의 빚을 가지고 평생 이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상대의 잘못된 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은혜를 입은 상황이 만들어질 때 신뢰도는 신속하게 높아진다.

신뢰는 작은 것부터 믿을 수 있게 될 때에 큰 것도 믿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작은 일부터 믿을 수 없는 관계에서 신뢰는 형성되지 않

다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이다. 만일 현지인이 느낄 때에 선교사는 내가 필요했고, 나는 선교사가 제공하는 물질이 필요했던 거래관계(contract relationship)였다면 언제라도 거래가 끝나면 헤어질 수 있는 관계인 것이다. 선교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배반이 아니라 거래관계의 끝인 것이다.

그렇다면 거래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상대를 한사람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만나는 것부터 시작된다.

선교사는 현지의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며, 예수그리스도가 이들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학교나 기관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프로그램을 마치면 지도자가 만들어지고 오해한다. 그래서 선교사는 자신이 받았던 교육프로그램을 선교지에서 복사판을 만들어 책임자로서 다양한 명칭을 거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물론 훌륭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른 선교사가 하나씩 나도 한다 라는 "나도신학교"가 설립되거나, 아는 것이 그것뿐이니 만들어지는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왜 그런가? 이것은 지도력개발의 기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현재와 같이 난무하는 신학교 시스템에서 바른 사역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족한 시스템이 선교로 옮겨진 상황에서는 더욱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을 부족하게 만들어준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놓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제자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만 제품처럼 만들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삶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며 제자들의 모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선교사도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말하지 않고 제자훈련을 살아가는 관계가 받아야 중요한 이유이다.

선교지는 선교사의 삶에서 복음을 읽는다. 선교사가 복음 자체로 보여진다. 선교사가 중요한 이유이다. 그런 선교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선교사가 만들어질 교회가 있어야 하고 그런 선교사가 훈련되어야 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선교의 선순환은 한 곳에서 시작되어진다. dr.yongcho@gmail.com

## 선교는 종합적으로,,, 신뢰 쌓기와 관계형성 중요 선교사가 복음 자체, 선교사의 삶에서 보여져야

### 선교는 종합적으로 보아야

선교는 한부분이 아닌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은 선교사 자신이다.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난 체험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예수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변화를 체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이끌 수 없는 것이다. 선교사의 거듭남과 그로 말미암은 삶의 변화가 가장 기본적인 선교의

사람들에게 말하였듯이 선교사는 자기를 만난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메시지와 메신저가 함께 드러나는 것이 선교인 것이다.

### 배달자의 신뢰 쌓기 우선

선교지에서 복음전파는 배달자의 신뢰 쌓기가 우선이다. 믿음만한 사람이 전해주어야 받는 순서가 된다. 흔하게 배달되어온 택배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전해주고 떠난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내용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택배서비스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어떤 물건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며 나에게 분명하

미국에서 911 이후에 우편물에 독극물 탄저균 테러로 20여명이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다. 당시에 어떤 사람도 발신자가 확실하지 않은 물건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서 열어본 사람들이 없었다. 이처럼 위협적인 일이 공적으로 경고가 되면 특히 그렇다.

선교지에서 전해지는 것은 믿음만한 제도가 인정되어진 곳이 아니라 가장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교지에서는 배달원이 확실하게 믿음만할 때에 전달되는 물건을 믿고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달자의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신뢰는 쌓여져 가는 것

신뢰는 쌓여져 가는 것이지

는다. 그래서 선교사의 삶에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에 이르기 까지 모든 면이 중요한 것이다.

선교사가 현지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신뢰를 쌓으려 해서는 안 된다. 때로 선교사들 가운데 현지를 도와주었는데 왜 나를 배반하는가 라며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 선교사는 현지 동역자를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갔거나 나를 배반한다고 느낄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은 나와 그 현지인이 어떻게 주고받는 관계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한 일에 당연한 대가를 받았

하는 것이다. 나를 만나는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이나에게 보낸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만날 수 있을 때에 선교는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보내진 사람을 만나는 시간 선교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된다. 이런 관계가 시작되고 지속될 때에 신뢰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 관계형성에 힘 들여야

선교사는 지도력개발이라는 프로그램보다 관계형성에 힘을 들여야 한다. 제자훈련이나 지도자훈련이 선교지에서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지도력을 개발하는 것을

##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 원 스토리 16강 /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세례, 구름기둥과 불기둥(출5-15장)(상)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드러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실을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다시 펼쳐 가실 것입니다. 이 여정을 위해 하나님은 400여년을 기다리셨고 모세라는 출애굽의 지도자를 위해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가고 깨닫고 인정하고 품어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세가 아니라 모세를 넘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드러날 은혜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합니다. 모세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가기 위한 율법의 예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자신도 그의 자녀들도 그 할례 언약을 어겨서는 하나님의 백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출5:1)고 선포하라는데 이 선포는 애굽을 떠날 때까지 반복될 것입니다(출7:16, 8:1, 20, 9:1, 13, 10:3). 그러나 바라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5:2)고 합니

다(출5:21)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류의 어려움은 주시지 않는다'는 기복신앙이 깔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로와의 전쟁보다 더 크고 험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숙히 박힌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의 그 기복

이 출애굽의 전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출6:2)로 선포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 4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 모세를 위해 80년 기다리심 하나님 드러내고 마음 안에 신들 몰아내는 전쟁 시작.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나님은 출애굽 긴 여정의 시작을 모세와 함께 하시는데 모세가 40년 머물던 미디안을 순탄하게 떠나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출4:24). 그러자 그의 아내 십보라가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의 아들을 급히 할례를 행하여 모세에게 그 포피를 주자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십니다(출4:25,26).

모세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지만 구원의 주체는 모

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창 17:14).

###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론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이적을 알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모아 아론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출4:28-30). 그리고 '백성은 믿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에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출4:31).

### 내 백성을 보내라

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바로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가 허락하지 않을 것과(출3:19,20) 여인들은 은, 금 패물과 의복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할 것과(출3:22) 심지어 장자의 죽음을까지도(출4:23)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하고(출5:4-18) 이스라엘 자손들은 현실적인 고통이 다가오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출5:19-21). '여호와와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

신앙과의 전쟁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 모세의 흔들림

모세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들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출5:22,23)라고 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박함을 이미 40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불평에 직면하자 흔들립니다. 아직 모세도

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려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출6:6,7)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여호와라'(출6:8)고 하십니다. 지금은 그 이상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 자리 잡지 못하는 모세

이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째 치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고통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도 다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출6:12)라고 합니다. 아직 모세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성경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긴장을 벗어나 야곱으로 시작되는 레위 자손의 족보로 말씀합니다(출6:14-25).

물론 그 전부터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야곱 때부터 모세와 아론을 준비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짧은 족보는 '여호와와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출6:26)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출6:27)로 끝맺으며 아론보다 모세를 더 앞세워 본격적인 출애굽 전쟁을 준비하십니다. 비록 모세는 한 번 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출6:29)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출6:30)라고 하겠지만 말입니다. (16면으로 계속)

##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 월 살인하지 말라(출20:13)찬220장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장 귀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타인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도 살인에 해당합니다. 계획적인 살인과 과실치사(출21:12-14, 18-36), 우발적 살인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도피성(민35:9-15, 신19:1-13, 수20:1-

9)에 관해도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오면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마5:21-22).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희생을 통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척만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 화 간음하지 말라(출20:14)찬264장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의 간음은 행음 중 특별히 혼외정사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간음을 음행보다 더 엄하게 다스립니다(신22:28-29, 22:22). 하나님께서는 행음도 당연히 미워하시지만 처벌의 경중에 비취본다면 행음보다 간음을 더욱 미워하십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 대부분이 가정과 관

련돼있습니다. 자녀에게 성경과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간통죄를 폐지하며 낙태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시켜준 범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시16:6).

### 수 도둑질하지 말라(출20:15)찬274장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타인에게 속한 유무형의 재산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불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는 행위 등 외에도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 있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입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나 App을 설치하는 행위, 성가대에서 복사 배포가 금지된 찬양악보를 복사해 사용하는

행위, 논문이나 설교 표절, 친구의 과제물 베끼기, 시험칠 때 부정행위(cheating)를 하는 것도 도둑질에 속합니다. 도둑질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심지어 가장 선한 것으로 공급하십니다(마7:7-8). 하나님께 구해 공급받으십시오.

### 목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20:16)찬426장

아홉 번째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참'이라고 하며, '참을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 기업인이 거짓말을

합니다. 교육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거짓을 말하고 속입니다. 자녀에게, 친구에게 거짓을 말하며 속입니다. 이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전략입니다(요8:44).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하지 않아서, 헌금을 적게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행5:4).

### 금 탐내지 말라(출20:17)찬513장

열 번째 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탐심은 더 가지려는 마음의 욕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 필요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권력, 쾌락, 돈 혹은 명예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소유를 부추기는

탐심은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눅12:15). 탐심은 그 자체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골3:5b). 결국 이 마지막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계명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복음과 십자가에 더 욕심을 내어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 토 도피성인인 예수 그리스도(출21:12-14)찬250장

하나님께서 살인한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한곳'(출21:13) 도피성을 지정해 주십니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과실로 살인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신약적 잣대로 보면 우리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마5:21-22).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면서(눅23:34) 우리를 도피성(예수님)으로 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살인자는 그해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수20:2-6). 우리는 도피성인인 예수님께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낱알이 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오늘을 삽시다.

## 세계한인기독교언론인협회 독후감 공모전 / 장려상

### 책명: "간절한 매달림"

사론 정  
(토랜스장으로교회)



어느 순간 내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다. 내가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후다닥 마치기 바빴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또 어떠한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말씀시간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모니의 성가대 순서였고 예배 후 식사하고 돌아오기 바빴다. 구역모임 참석요청을 받는 것은 부담스러웠고 어느 부서 봉사를 부탁받는 것은 더 부담스러웠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하늘나라는 보장받고 싶었다. 기도할 때는 분명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달라 했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

신다는 사실이 크게 위안이 되었다. 극도의 정결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이라 하니 그 또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게 하는 결정적인 힌트를 얻게 되었다. 살아있는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 하니 오히려 전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또한 '상한 심령'을 가져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된다 한다. 힘들었던 순간마다 불안한 마음을 먼저 풀어보고자 급하

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매달릴 때 우리의 상황을 위급 상황으로 인정하신다 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데 나는 얼마큼 나 자신을 내려놓는지 돌아보게 된다. 진정한 삶이 정화되기 위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초대하시고 더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데 우리는 여타게 율부짓음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이다. 또 새롭게 배운 사실이 하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좌절된 상태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열정을 회복하고 싶다."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성숙한 여느 일반인들보다도 못한 내 모습이었다. 운전할 때는 양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마켓에서 장을 볼 때도 남보다 좋은 물건을 선점하는 것이 낙으로 여겨졌다. 스스로 생각해도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것이지, 생각을 하며 무뎠지며 살고 있다. 어느 순간에 '한달 성경읽기'에 도전을 하고 싶어져서 시작하게 되었다. 박찬 분량에 힘들기도 하였지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큐티를 하는 것이 즐겁기도 했다.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꾸준히 읽지 못하자 이 은혜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었다. '간절한 매달림'을 읽으면서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결여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배전보다 예배후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간절해야 한다는 데 나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맴돌고 계

게 사람을 찾기도 했고, 인생이 다 이런 것이니까 강해져야 한다고 서투른 결론을 내려 보기도 했다. 내 방식대로 성숙해지는 척 했었는데 오직 방법은, 다듬어지지 않아도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절박한 상황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도구로 만드실 수 있다. 기본 내킬 때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곤 했는데,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드릴 때 이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니 건성으로 대충 드릴 찬양과 기도가 아니었다. 우리가, 임마를 찾는 아기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한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인간의 갈망, 열정에 있다한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지만 지금이 위급상황임에도 간절히 매달리지 못했다

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곳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사람들에 제공되는 장소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위한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생각해보니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와 닿았던 것은 우리의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전폭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긴 기다림도 내포돼 있다. 하나님의 응답을 잘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선부분 결정으로 얼마나 실수하고 후회하기를 반복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다리면 하나님도 응답으로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신다 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과거까지도 다 치유 받고 싶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펴기

니카라과

극빈자 자녀 장학금 전달

금요일인 1월 21일 오전 10시 선교 사무실에서 모두 2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2명만 뽑으려 시작한 일입니다. 사정을 전해들은 바나바선교회를 비롯하여 필라 엘립교회, 토론토 영광교회와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믿음의 식구들의 손길을 통해 28명을 지원하게 되니 너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의 폐인 부분을 흙으로 메꾸고 지나가는 차량에 구걸하여 연명하는 가정 △남의 집 빨래(12장-85센트) 다림질(12장-1.15불)을 해주고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 △커피를 따는 일(일일 평균 2불미만)이나 땅콩수확(일일 1.7불)하는 일을 하는 가정 △주 3일 빵공장에서 일을 하며 그 빵을 가져다 팔아 생활하는 가정(주 14불) △실직하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노동자로

살아가는 가정 △엄마가 뇌졸중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할머니가 또르띠아를 팔아 생활하는 가정 △할머니가 스페인에서 가정부로 일하여 보내온 돈으로 생활하는 가정 등...

참 아픈 사연들을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예수님을 품에 안겨주고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니카라과에서는 월요일인 1월 24일부터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매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새 학년 시작에 앞서서 필요하겠기에 장학금과 함께 제가 선교비로 준비한 책가방, 학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작은 아이들로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영원, 임옥란 선교사 내외분의 지도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국립공대에 잇그레 합격했지만 지방에서 버스를 세 번이나 갈아타며 해야 할 교통비가 없는 대학생 3명에게도 후원자가 연결이 되어서 별도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동홍 드림 missionnica21@gmail.com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46.성경적 이혼관(離婚觀)

‘시집가면 시댁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금과옥조(金科玉條)였고, ‘한번 결혼하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진리로 여겨졌던 것이 그리 오래 지 않은 과거였는데, 이제는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 제1위를 넘보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이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동반자관계의 언약을 거절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이혼불가에 대한 기본원리를 제시하신(마19:5-6) 것을 보면 이혼이 하나님의 제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모세가 그 당시에 성행하고 있던 이혼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통제하기 위하여 ‘이혼증서’를 주라고 허용한 것(마19:8)이라고 설명하면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이라는 이혼에 대한 단 한 가지 예외규정을 인정하셨습니다(마5:32,19:9). 결국 이혼에 관한 문제를 완곡한 표현으로 금하고 있음은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의 이혼관입니다.

2. 성경적 이혼의 유래

이혼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혼의 기원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이 신적 제도라면, 이혼은 인간의 제도이다. 성경에서 이혼이 인정되었고 허용되었으며 통제되었지만 이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제도화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이혼을 제정하셨거나 제도화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회를 위한 질서의 하나로 이혼의 개념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

(4)바울의 이혼관

바울은 고전7:10-16에서 ‘신자들간의 이혼’과 ‘신자와 불신자간의 이혼’, 두 가지 면에서 이혼문제를

이혼은 신적제도가 아닌 인간의 제도 이혼 일부 인정은 인간의 권면일 뿐

으로 가족의 틀이 파괴되고 해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므로 이혼은 인간이 만든 인간의 제도입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신자들간의 이혼 문제는 권고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크리스천 아내나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명령에서 신자들의 이혼을 허락하진 않지만 만약 갈릴리아도 회개하고 화해하여 재결합하려고 했습니다(고전7:10-11).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간의 이혼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권고, 권면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불신자 배우자와 이혼하면 안 된다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신자가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도 불신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고 권했습니다(고전7:12-16).

이 같은 이혼율 증가의 사회학적 배경에 대하여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장이었던 고(故) 이태영 박사는 (1)이혼관의 변화-옛날에는 일부 종사(一夫從事)의 윤리관으로 이혼이 금기시되었으나, 이제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달라지면서 이혼금지, 불허에서 허용 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2)여성의 지위상승-남편과의 굴종관계에서 대등한 인격적 관계를 갖게 되고 경제적 지위와 능력의 향상으로 이혼에 대한 긍정적, 적극적 자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3)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취업증대, 경제적 독립과 함께 남편 이외의 남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이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성경적 이혼관

(1) 모세의 이혼관

구약에서 이혼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은 ‘이혼법’이라고 불리우는 신명기 24장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의 교훈은 이교도문화의 영향으로 이미 쉽게 이혼이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들을 금지, 규제하기 위함이었습니

(2)하나님의 이혼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말2:16)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제정하지도 않으셨고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3)예수님의 이혼관

결혼이란 동반자관계의 언약이

이혼은 신적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이혼을 금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혼을 일부 인정함은 인간의 권면일 뿐입니다. 인간의 권면으로 이혼을 정당화,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 이혼관의 결론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세계한인기독교언론인협회...

(14면에서 계속)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싶다. 기다림이란 간절하는 것이요, 추구하는 것이요, 믿고 나가는 것이다. 예배가 바로 주님을 섬기며 기다리는 과정이라 한다. 우리가 장에를 넘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주신다 한다.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많았다. 여기서는 이웃과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그릇에 비유했다. 빌려서라도 와야 하는 빈 그릇. 우리가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풍성히 채워주신다니 중보기도가 짐으로 느껴지지 않고 축복의 마중물 같다. 하지만 내어놓지 않은 그릇까지 채워주시지는 않는다 하니 경각심이 생긴다.

하나님은 뚜렷한 임재를 우리에게 부여주시기 원한다. 그리고 그 임재를 체험하면 그 은혜를 잘 전달해야 한다.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되도록, 예배와 기도로 채워야겠다. 그러기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한다. 순간순간 그것을 느끼기도 하면서 나는 내 만족을 먼저 선택하곤 했다. 하나님 임재를 향한 열정이 부흥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향한 열정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예배드리고 위기의 순간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의 임재로 빨려들어 갈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해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로의 과정을 단축시킨다 한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읽을수록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서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신다는 대목이다. 흥해를 건너듯이 눈물의 골짜기인 거룩한 좌절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훈련에 지름길은 없다 하고 주님께서 상한 심령들에 가까이 계신다 하니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룩한 것을 탄생시키려 애쓰신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열정적인 관계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좌절 한 상태이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과정은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한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열정을 회복하고 싶다.

이혼은 신적제도가 아닌 인간의 제도 이혼 일부 인정은 인간의 권면일 뿐

으로 가족의 틀이 파괴되고 해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므로 이혼은 인간이 만든 인간의 제도입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신자들간의 이혼 문제는 권고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크리스천 아내나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명령에서 신자들의 이혼을 허락하진 않지만 만약 갈릴리아도 회개하고 화해하여 재결합하려고 했습니다(고전7:10-11).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간의 이혼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권고, 권면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불신자 배우자와 이혼하면 안 된다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신자가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도 불신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고 권했습니다(고전7:12-16).

이 같은 이혼율 증가의 사회학적 배경에 대하여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장이었던 고(故) 이태영 박사는 (1)이혼관의 변화-옛날에는 일부 종사(一夫從事)의 윤리관으로 이혼이 금기시되었으나, 이제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달라지면서 이혼금지, 불허에서 허용 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2)여성의 지위상승-남편과의 굴종관계에서 대등한 인격적 관계를 갖게 되고 경제적 지위와 능력의 향상으로 이혼에 대한 긍정적, 적극적 자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3)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취업증대, 경제적 독립과 함께 남편 이외의 남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이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성경적 이혼관

(1) 모세의 이혼관

구약에서 이혼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은 ‘이혼법’이라고 불리우는 신명기 24장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의 교훈은 이교도문화의 영향으로 이미 쉽게 이혼이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들을 금지, 규제하기 위함이었습니

(2)하나님의 이혼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말2:16)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제정하지도 않으셨고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3)예수님의 이혼관

결혼이란 동반자관계의 언약이

이혼은 신적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이혼을 금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혼을 일부 인정함은 인간의 권면일 뿐입니다. 인간의 권면으로 이혼을 정당화,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 이혼관의 결론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1. 성경적 이혼의 정의

결혼이란 동반자관계의 언약이

1. 성경적 이혼의 정의

Advertisement for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Includes text: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2022학년도 봄학기 입학안내 (주. 야간)', and a table of programs and fees.

Advertisement for Missio Seminary. Includes text: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MOU 체결 Thursday January 13th 2022', and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 교인출석 줄었지만 지역사회 봉사/섬김은 증가

## CT, 하트포드신학교의 '팬데믹 기간 교회 지역사회 사역' 설문조사 보도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 교회 회중의 절반 이상이 COVID-19 전염병 동안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거나 기존 사역을 확장했다. 실제로 교회공동체는 전염병에 대응하여 37가지 이상의 봉사 활동을 시작하거나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Study: Church Outreach Expands to Meet Pandemic Needs: Even with lower attendance, congregations are adapting their ministries and launching new ones).

'릴리재단' 보조로 다년간 진행되고 있는 하트포드신학교의 이번 보고서("Congregational Response to the Pandemic: Extraordinary Social Outreach in a Time of Crisis")는 미국 교회가 현재 수행하는 새롭고 강화된 사회봉사 활동과 지역사회 사역의 수준은 기념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년 초 시작된 5개년 프로젝트의 두 번째 부분은 "팬데믹이 교회공동체에 준 영향 연구"로, 13개 교단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오차율은 +/- 4이다.

동 보고서는 거의 175,000개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전염병에 대응해 사역, 기금 및 공급을 시작하거나 확장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반적으로 교회의 거의 4분의 3(74%)이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3분의 2에 가까운 교회가 새로운 사역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38개 기독교 교단의 대표자 820명을 대상으로 한 11월 설

문조사에서 새로운 발견은 변화에 대한 교인들의 태도, 특히 다양성 증가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2020년에는 3/4 미만(73%)이 자신의 회중이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기꺼이 변화할 의향이 있다고 동의했다. 11월에는 86%로 증가했다.

또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8%가 2021년 여름에

지 걱정된다고 답한 23%였다.

동 보고서는 또한 약 200,000명의 교인들이 COVID-19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했다. 교인 중 사망을 보고한 교회의 비율은 여름의 17%에서 2차 조사가 실시된 11월의 28%로 증가했다.

2021년 여름의 응답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 보고서에 따르면 약 1/3의 교회에서 음식 요청이 증가한 것

역사회 지원 사역을 시작하거나 확장했으며, 전화나무를 사용해 회원과 비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격려하거나 진료 예약에 차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노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회는 대면예배로 폐쇄되고 기타 모임은 온라인으로 이동했지만 약 4분의 1의 회중은 집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보육 및 사교육 제공에 이르기

등록이나 반인종주의의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사회활동과 관련된 새 사역이나 확장된 사역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연구와 유사한 결과에서 대부분의 교회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예배를 사용하고 있으며 85%는 대면 및 가상 옵션을 모두 제공한다고 말했다. 11월에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 15%는 오로지 대면으로만 모인다고 답했으며 3%는 가상으로만



을 보고하는 숫자는 28%에서 37%로 증가했다.

오미크론 변종의 창궐로 동 보고서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 이하였던 친교행사 및 종교교육과 같은 활동에 대한 미래계획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동 보고서는 "많은 교회에서 그들의 상황은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잃은 멤버들 때문에 그들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작하고 확장한 사역 때문에 결코 팬데믹 기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 변화된 다양성 증가... 식량배급 추가, 정보공유, 진료예약 차량서비스 건물사용 허가, 백신클리닉, 정신건강 사역 시작

28%, 2021년 여름에 28%, 2020년 대우행 전과 2020년 시위의 대부분이 11월에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교회가 새로운 운영 방식을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수의 회중이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여름에는 16%가 계속할 수 있을

로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동안 약 1/4이 재정지원 요청을 더 많이 받았다. 11월 설문조사에서는 22%가 식량배급을 추가하거나 늘렸다고 말했으며 21%는 지역사회를 위한 재정 지원을 늘렸거나 시작했다고 밝혔다. 더 많은 비율(약 28%)이 지

까지 다른 활동을 위해 건물사용을 확대했다.

교회의 약 5분의 1이 백신클리닉 주최, 마스크 제작, 최전선 근로자를 위한 축하행사 등 전염병과 특별히 관련된 사역에 참여했다.

12%는 정신건강 사역을 시작했거나 늘렸고 6%는 유권자

만나는 것을 선택했다.

출석률은 여전히 낮지만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출석 감소율은 9%였다. 여름에는 12% 하락했다.

25%이상의 심각한 감소를 보고한 교회의 수는 여름의 35.2%에서 11월의 30.3%로 감소했다. 그리고 5% 이상 성장

### 원스토리...16강

(13면에서 계속)

#### 출애굽 전쟁이 필요한 이유

10가지 재앙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출7:4:5)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 전쟁을 치르시면서 '내가 여호와다'(출6:2:8,29, 12:12)는 말씀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출6:7, 7:5,17, 8:10,22, 9:14,29, 10:2)는 말씀을 반복하여 선포하십니다. 또한 이 전쟁이 하나님과 바로의 힘겨루기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안에 이미 말씀하신대로 진행되는 전쟁임을 드러내십니다(출7:13,22, 8:15,19, 9:12,35).

먼저 전조전으로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뱀이 된 지팡이를 삼켜 버립니다(출7:8-12).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아직 시작도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은 사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위한 재앙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 드러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풍요의 땅 애굽에 머물며 크고 작은 수많은 잡신들을 마음에 품고 귀로만 전해져온 '여호와 하나님'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있는 신들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 9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출7:14-25)은 '피 재앙'으로 나일 강 물이 모두 피로 변하여 생명의 상징인 피와 그들의 우상인 나일 강이

오려려 화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출8:1-15)은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 재앙'으로 지나친 개구리의 숫자는 오려려 화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출8:16-19)은 '이 재앙'으로 이가 가죽 뿐 아니라 사람을 괴롭혔는데 그들의 생명의 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출8:20-32)은 '파리재앙'으로 파리 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해져도 역시 그들의 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출9:1-7)은 '악질의 재앙'으로 가족들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그들의 가족의 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출9:8-12)은 '독종재앙'으로 사람과 가축에 해가 되었지만 역시 애굽의 병마와 의술의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출9:13-35)은 '우박재앙'으로 하늘에서 우박에 불덩이가 섞여 내려도 그들의 하늘의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출10:1-20)은 '메뚜기재앙'으로 메뚜기가 우박을 피해 남은 곡물과 나무를 다 먹어치우고 애굽 땅에 가득해도 곡물의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출10:21-29)은 '어둠재앙'으로 3일간 애굽 온 땅에 어둠이 덮여도 그들의 태양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냅니다(출7:22, 8:7). 그러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출8:18). 또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의 피해가 없습니다(출8:22, 9:4:7, 10:23).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분하신 것입니다(출8:23). 여섯 번째 '독종재앙' 때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고통을 받았고(출9:11) 일곱 번째 '우박재앙' 때는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

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족을 피하여 들었습니다(출9:20). 여덟 번째 '메뚜기재앙' 때는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 왕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출10:7).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바로의 마음은 시종일관 완강하고 완악했습니다(출7:22, 8:15,19,32, 9:7,12,35, 10:20, 11:10).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의 죄인의 마음, 자기 중심의 마음대로 살도록 두신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롬1:26).

바로는 네 번째 재앙 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출8:25),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출8:28)고 하였으나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

앙 때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라'(출9:28)고 하였지만 다시 완악해졌고 여덟 번째 재앙 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출10:11)고 하여 가족은 두고 가라했지만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또한 아홉 번째 재앙 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출10:24)고 하여 이번에는 가족은 함께 가되 소우는 두고 가라했지만 역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아직 바로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가 애굽에 다시 오기 전에 하나님은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출4:23). 바로와의 힘겨루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정회원



ABHE 정회원



TRACS 정회원



CHEA 정회원

## 2022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학위과정	교차문화 철학박사(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MA CC) 신학사(BA) 기독교 상담학 학사(BA CC)
특혜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수여 한국어, English, 중국어, Spanish Track 운영중 LA Extension (317 W. Palmer Ave., Glendale)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학비보조(FSA), Pell & Cal Grant수여 대면, Zoom Sync, 통신으로 강의 수강 가능 학사 학위부터 석사학위 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박사과정은 50%) HD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강의 제공

### 릴리재단 백만불 그랜트 수령

Grace Mission University는 Lilly Endowment Inc.로부터 Pathways for Tomorrow Initiative (내일을 향한 첨경 이니셔티브) 2차에 선정되어 지난 12월에 \$1,000,000의 Grant를 받았습니다.

GMU는 이 Grant로 21세기 신학 교육을 받은 미래의 목회자를 제공하는 신학대학원이 되기 위해 향후 3년간 다음 4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릴리 재단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1) 미래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 개선 프로젝트
- (2) 다문화/다인종 리더십을 갖춘 목회자 양성 프로젝트
- (3)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디지털 도서관 설립 프로젝트
- (4) IT & 미디어에 능숙한 미래의 목회자 양성 프로젝트

릴리 인다우먼트는인디애나폴리스를 기반으로 해서 1937년에 J.K.릴리 시니어와 그의 아들 엘리와 J.K. 릴리 Jr.가 제약회사인 Eli Lilly & Company사의 주식을 증여해서 세운 사설 자선재단입니다.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입학 문의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S Brookhurst Rd  
S Wanda Dr  
S Locust Dr